



# 정답과 해설

중학교

국어 2-1

박영민 외

# 갈래 익히기

6~7쪽

## 시

- 1 (1) ○ (2) ○ (3) ×      2 (1) 상황 (2) 정서 (3) 태도  
 3 ⑤      4 청각적 심상      5 (1) 직유 (2) 은유 (3) 의인  
 6 ⑤

- 1 (1) 시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정서나 생각 또는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함축적으로 표현한 글을 말한다.  
 (2) 시의 화자는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 즉 목소리를 내는 사람으로, 독자에게 시의 의미를 전달한다.  
 (3) 시의 화자는 시인이 자신을 대신하여 사물이나 인물을 내세우기도 하고, 시인 자신이 화자가 될 수도 있다. 이때 화자가 시인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해서 시의 의미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 2 (1) 상황은 화자가 처해 있는 시간적, 공간적, 심리적 상황 등을 말한다. 「면 후일」의 화자는 현재 '당신'과 이별한 상황에 놓여 있다.  
 (2) 정서는 화자가 어떤 상황을 접했을 때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생각을 말한다. 「첫사랑」에는 화자가 눈꽃이 피어난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는 정서가 드러난다.  
 (3) 태도는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보이는 대응 방식을 말한다. 「나무의 꿈」의 화자는 나무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바라보는 태도를 보여 준다.
- 3 '누군가 그 창문을 통해 바다를 / 생각할지도 몰라 / 수평선을 넘어가는 목선을 그리워할지도 몰라'에서는 '~를, 지도 몰라'라는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 4 청각적 심상은 귀로 들을 수 있는 이미지를 말한다. '바람 소리', '삐걱 소리가 나는', '짜그락 짜그락 두드려 보았겠지'에는 청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 5 (1) 직유는 '같이', '처럼', '듯이' 등의 말을 사용하여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직접 연결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 '춤을 추듯 피어오르는 거야'에는 '~듯'을 통해 대상의 행동을 춤에 비유한 직유가 사용되고 있다.  
 (2) 은유는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직접 연결하는 말 없이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티뜨린다'에는 봄에 피어난 꽃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표현하는 은유가 사용되고 있다.  
 (3) 의인은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사물, 추상적 개념 등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다.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에는 눈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이 사용되고 있다.

6 반어는 실제로 처한 상황이나 실제의 속마음과는 반대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겉으로는 뜻이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속에 말하고자 하는 의미나 진실을 담아 표현하는 방법은 역설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반어는 표현하려는 생각이나 감정 등을 강조할 수 있다.  
 ②, ④ 반어는 실제로 처한 상황이나 속마음을 의도적으로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직접적인 표현보다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  
 ③ 반어는 잘못을 한 사람에게 "잘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어조나 상황에 따라 대상을 비교거나 비판하는 뜻을 담을 수 있다.

## 소설

8~9쪽

- 1 (1) ○ (2) ×      2 1인칭 주인공 시점      3 ③  
 4 (1) 주제 (2) 사건 (3) 절정      5 내적 갈등      6 ③

- 1 (1) 소설은 현실에서 일어날 만한 일을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꾸며 쓴 이야기를 말한다.  
 (2) 소설은 작가가 허구적으로 꾸며 쓴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 삶의 의미와 진실이 담겨 있다. 이를 소설의 진실성이라고 한다.
- 2 제시된 장면에서는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내면 심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해당한다.
- 3 제시된 구성 방식은 '현재-과거-현재'로 시간의 흐름을 바꾸어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으로, 역순행적 구성에 해당한다.
- 4 (1) 소설에서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 생각은 주제를 통해 나타난다.  
 (2) 소설 구성의 3요소 중 사건은 등장인물들이 겪거나 벌이는 일과 행동을 말한다.  
 (3) 소설의 절정 단계에서는 등장인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며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된다.
- 5 제시된 장면에서 '나'는 다른 사람의 그림으로 자신이 장원을 차지한 사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과 내버려두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데, 이처럼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내적 갈등이라 한다.
- 6 소설에서 갈등은 인물과 인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인물과 사회, 자연, 운명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② 갈등은 사건을 서로 인과적으로 연결시키며 긴장감을 주는 등 사건을 전개하는 역할을 한다.  
 ④ 소설에서 갈등하는 원인과 갈등하는 모습을 통해 인물의 가치관과 태도가 드러난다.  
 ⑤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서 작품의 주제를 알 수 있다.

- 1 (1) × (2) ○ (3) ○      2 (1) 영웅 (2) 풍자 (3) 가정  
 3 ④      4 (1) 신분제 (2) 부조리      5 한 푼어치도 안 되는 양반!  
 6 ④

- 1 (1) 고전 소설의 인물은 주로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변하지 않는 평면적 인물로 설정된다.  
 (2) 고전 소설에서는 계층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특정한 계층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을 주로 등장시킨다.  
 (3) 고전 소설에는 주인공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일생을 시간 순서대로 보여 주는 일대기적 구성 방식이 나타난다.
- 2 (1)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군담 소설에는 영웅적 주인공이 등장하여 적군을 물리치는 등의 활약을 한다.  
 (2) 「양반전」은 풍자 대상을 직접적으로 희화화하여 시대를 풍자하고 사회 문제를 비판한 풍자 소설에 속한다.  
 (3) 가정 소설은 한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가족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다룬 소설을 말한다. 「사씨남정기」는 처첩 간의 갈등을, 「장화홍련전」은 계모와 전처 자식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 3 고전 소설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고 글에서만 쓰는 문어체를 주로 사용한다.
- 4 (1) 「홍길동전」에서 길동은 신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신분제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를 얻지 못해 갈등을 겪는다.  
 (2) 「양반전」에서는 부자가 양반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지배층의 횡포 등 사회 부조리를 경험하며 외적 갈등을 겪는다.

참고 자료

「홍길동전」에 반영된 사회상

- 신분 차별 제도: 양반과 종을 구분하여 차별하고, 본부인이 낳은 아들과 첩이 낳은 아들을 차별함.
- 축첩 제도: 정식으로 결혼한 본부인 외에 첩을 여러 명 두는 것을 허용함.
- 유교 중심 사회: 공자·맹자의 학문을 중시하고, 무관보다 문관이 대접을 받음. 출세하여 이름을 떨치는 입신양명 사상이 있음.

- 5 제시된 장면에서는 “한 푼어치도 안 되는 양반!”이라는 아내의 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양반의 무능함을 풍자하고 있다.
- 6 풍자는 부조리한 대상을 과장하거나 희화화하여 간접적으로 비판(ㄴ)하고,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독자가 작품을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게 한다(ㄹ).

**오답 풀이** 가, 다. 대상을 익살스럽고도 악의 없이 그려내어 독자가 대상에 대해 연민과 애정을 가지고 동정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해학에 해당한다.

- 1 (1) 정보 (2) 객관적      2 처음      3 ⑤

- 1 (1) 설명하는 글은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쓴 글로,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설명하는 글은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느낌이 아닌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설명하는 글의 객관성이라고 한다.
- 2 제시된 부분은 글을 쓴 이유 및 목적을 제시하고,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며 설명할 대상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설명하는 글의 ‘처음’ 부분에 해당한다.

- 3 구분은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서 설명하는 방법이다. 제시된 부분은 동물을 직접 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는 구分的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정의는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식으로 대상의 개념이나 의미를 명확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이다.  
 ② 예시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③ 인과는 어떤 사실이나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여 설명하는 방법이다.  
 ④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다.

- 1 (1) ○ (2) ×      2 귀납      3 ②

- 1 (1) 주장하는 글은 어떤 문제에 대해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쓴 글이다.  
 (2) 주장하는 글은 일반적으로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으로 전개된다.
- 2 제시된 논증 방법은 ‘현상 ①’과 ‘현상 ②’라는 개별적인 현상으로부터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논증 방법은 참인 사실이나 현상을 바탕으로 참일 가능성이 높은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에 해당한다.

영상 매체 자료

1 복합양식성 2 (1) 장면 (2) 목적 (3) 저작권 3 ㉓

- 1 문자, 소리, 음악, 그림, 사진, 동영상 등 여러 표현 양식이 복합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것을 복합양식성이라고 한다. 영상 매체 자료는 카메라의 거리와 각도, 자막 등의 시각적 요소와 배경 음악, 효과음, 대사 등의 청각적 요소가 어우러져 복합양식성을 지닌다.
- 2 (1)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스토리보드를 작성할 때는 전달하려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주요 장면을 정리하고, 각 장면의 내용과 촬영 방법, 자막, 배경 음악, 효과음, 대사 등을 정해야 한다.  
 (2)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촬영하고 편집할 때는 카메라의 거리와 각도에 따라 담을 수 있는 장면과 대상의 느낌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 촬영하고, 주제와 제작 목적이 잘 드러나는지를 고려하여 편집해야 한다.  
 (3) 영상 매체 자료를 공유하기 전에는 완성한 영상에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 3 영상 매체 자료는 '계획하기(㉠) → 스토리보드 작성하기(㉡) → 촬영하고 편집하기(㉢) → 공유하기(㉣)'의 과정으로 제작된다.

참고 자료

장면 배치에 따른 편집 방법

- 시간 순서에 따른 편집: 사건을 논리적 순서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열하면 사건의 필연성이나 인과 관계를 쉽게 보여 줄 수 있음.
- 주관적 시간에 따른 편집: 과거와 현재, 미래를 뒤섞어서 배열하면 인물의 감정을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있고 수용자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음.
- 교차 편집: 하나의 사건에 연관된 각각의 행위들이 벌어지는 장소를 번갈아 가며 보여 주면 동시에 발생하는 행위들이 맞물리면서 몰입감이 높아짐.

참고 자료

유추와 일반화

유추와 일반화는 특수한 사례들을 검토한 뒤, 그 결론으로 사실이나 진리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귀납적 논증 방법에 속한다.

- 유추: 두 대상 간의 유사점을 근거로 들어, 그것들 사이의 또 다른 점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논증 방법
  - ㉠ 태국은 강수량과 일조량이 많아 벼농사가 잘된다. 베트남도 강수량과 일조량이 많다. 따라서 베트남도 벼농사가 잘될 것이다.
- 일반화: 경험적 사례들로부터 추상화를 통해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
  - ㉠ 첫 번째 까마귀는 검다. 두 번째 까마귀는 검다. ... 백 번째 까마귀는 검다. 따라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

3 주장하는 글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관적 요인은 이유라고 하고, 주장의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하는 객관적 자료를 근거라고 한다.

오답 풀이

- ① 주장하는 글에서는 주장과 이유, 근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논리적이고 타당한 주장을 전개할 수 있다.
- ③ 주장하는 글의 '서론'에서는 주로 문제 상황과 글을 쓴 목적을 밝힌다.
- ④ 주장하는 글의 '본론'에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다.
- ⑤ 주장하는 글의 '결론'에서는 본론을 요약정리하고, 글쓴이의 주장을 강조하며 마무리한다.

발표

1 (1) ○ (2) ○ 2 준언어적 표현 전략 3 ㉡

- 1 (1) 발표는 청중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어떠한 사실을 전하는 말하기이다.  
 (2) 발표는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청중을 이해시키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청중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말을 할 때 언어적 표현에 덧붙여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 전략을 준언어적 표현 전략이라고 하며, 성량, 속도, 어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발표자가 '목소리를 높이며' 착용 로봇공학자가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목소리의 크기로 성량과 관련 있으므로, 준언어적 표현 전략에 해당한다.
- 3 발표를 준비할 때는 발표의 주제와 목적, 청중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여 발표 자료를 재구성해야 한다.

# 1 세상을 향한 시선과 목소리

## 01 보는 이와 말하는 이

**소단원 한눈에 보기** 20~21쪽

1 (1) 화자 (2) 서술자 (3) 주제  
 2 (1) × (2) ○ (3) ×  
 3 (1) 주인공 (2) 관찰 (3) 직접적  
 4 (1) ○ (2) × (3) ○  
 5 1인칭 주인공, 교차  
 6 (1) 0 (2) 1

**제재 ① 「나무의 꿈」**

**스스로 확인하기** 24~25쪽

(1) × (2) 꿈 (3) 현재

**내용 확인 문제** 24~25쪽

1 ⑤ 2 하지만 3 ④

- 이 시의 나무는 미성숙한 존재로,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지만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이 시의 화자는 꿈을 가진 나무를 응원하면서도 꿈을 이루는 것과 상관없이 나무가 현재의 모습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나무가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불태우는 내용은 시에 나타나지 않는다.
- 이 시에서 '하지만'이라는 접속어는 시상을 전환하여 '지금 현재' 나무의 모습에 주목하게 한다. 앞부분에서는 나무가 품은 미래의 꿈을 노래했다면, '하지만'부터는 나무에게 현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의 '바람'은 현재의 나무와 함께하는 존재로, 나무가 바람을 만나고 있다는 것은 나무가 현재의 삶을 충실히 느끼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즉 꿈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의 모습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나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활동 응용 문제** 26~27쪽

1 ④ 2 ⑤

- 이 시의 화자는 다양한 꿈을 지닌 존재인 나무가 꿈을 실현하지 못하더라도 가치 있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꿈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대상을 응원하는 것으로, 현실에서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 화자를 나무 자신으로 바꾸었을 때, '나'는 미래를 꿈꾸며 희망에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때 나무는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제재 ② 「내가 그린 히말라야시다 그림」**

**스스로 확인하기** 28~49쪽

(1) × (2) 애호가 (3) 화방 (4) × (5) × (6) 장원 (7) × (8) 할아버지 (9) ○ (10) × (11) 재능 (12) 크레파스 (13) ○ (14) × (15) 좌절감 (16) 내적 (17) 의심 (18) ○ (19) ○

**내용 확인 문제** 28~49쪽

1 ⑤ 2 ④ 3 ④ 4 ⑤ 5 ② 6 쑥스럽게 웃었다.  
 7 ④ 8 ② 9 ①, ② 10 ⑤ 11 ⑤ 12 ③  
 13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보였다. 14 ⑤ 15 ②  
 16 ⑤ 17 ② 18 ④ 19 ③ 20 과거, 현재

- '1'의 '나'는 그림을 좋아하며 즐기는 애호가로, 유명 화가인 백선규의 작품에 관심을 갖고 있다. 사람들에게 재능을 인정받은 유명한 화가는 '0'의 '나'이다.
  - '0'의 '나'는 사람들에게 재능을 인정받은 유명한 화가 백선규이다. 그러나 '나'(0)는 '그날 그 일이 있던 뒤부터'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재능을 의심하며 산다.
  - '나'(0)는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화가이지만, '그 일'이 있던 뒤부터 자신의 재능을 스스로 의심하며 산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따라서 '그 일은 현재 '나'(0)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그 일'은 '나'(0)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좋은 추억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화가가 된 '나'(0)는 그 일이 아니었다면 다른 직업을 가졌을 거라고 말하고 있다.
- ③, ⑤ '나'(0)는 '그 일'이 일어난 건 '나'(0)의 탓이 아니고, 누군가의 실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 4 '나'(1)는 백선규를 떠올리며 다른 사람의 시간을 마냥 흘러가게 하고도 모른 척 시치미를 뚝 뺨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나'(1)가 백선규를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과거의 '그 일' 때문이다.
- 5 초등학교 3학년 때의 '나'(0)는 그림이나 사생 대회보다는 축구에 더 관심이 많았다. '나'(0)는 사생 대회와 같은 날에 열린 축구 결승전을 보지 못하는 것에 속상해할 뿐 사생 대회에서 상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6 천수기 선생님에게 '나'(0)가 사생 대회에서 장원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크게 기쁨을 표현하지 않고 씩스레게 웃기만 했다. 이를 통해 감정 표현이 서툴고 무뎉뎉한 아버지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 7 '나'(1)의 아버지는 “딸내미가 이쁘게 커서 시집만 잘 가면 됐지~힘들게 공부할 거 뭐 있나?”라고 말하였고, 이 말을 전해들은 '나'(1)는 그림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이 없어진다. 즉 '나'(1)는 그림에 재능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말로 인해 화가의 꿈을 키우지 않게 되었다.
- 8 '나'(1)는 사생 대회에서 '나'(0)를 보고 웃도 지저분하고 검정 고무신을 신은 데다 간장 냄새가 난다고 묘사하였다. 그리고 이를 가난의 냄새라고 표현하였으므로, '나'(1)는 '나'(0)의 첫 인상에 대해 가난하고 지저분하다고 느꼈음을 알 수 있다.
- 9 '나'(0)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반대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화가의 꿈을 포기한다. 할아버지는 미술은 도시의 여유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예술이라고 생각했으며, 가난한 농사꾼의 자식인 아버지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다.
- 10 '나'(0)와 여자아이는 서로 가까운 곳에 앉아서 각자 그림을 그렸지만 '나'(0)가 여자아이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④ 사생 대회는 모든 게 작년하고 비슷했지만, '나'(0)가 반 대표로 참가하게 되었다는 것과 대회 장소가 '나'(0)의 학교라는 점이 달랐다.
- ② '나'(0)는 그림을 그려서 제출할 도화지를 받아 들고 미리 부여받은 번호인 '124'를 적었다.
- ③ '나'(0)는 축구에만 관심이 있었던 작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장원 상으로 그림 도구를 받아서 그림을 제대로 그리고 싶어 했다.
- 11 자주색 원피스에 검정 에나멜 구두를 신은 여자아이는 얼굴이 무척 희고 예뻐서 '나'(0)와는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다고 하였다. 여자아이는 사생 대회에 참가해 '나'(0)를 보고 코를 찡그린 후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다.

- 12 '나'(0)는 심사 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동안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며, 이상하게 재미가 없다고 느낀다. 이는 사생 대회의 심사 결과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 13 '나'(0)는 주 선생님에게서 자신이 사생 대회의 장원이라는 말을 듣고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선생님 앞에서 눈물을 보인다. 이 눈물은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의미한다.
- 14 '나'(1)는 자신이 장원 작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 실수와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는 게 귀찮을 것 같았고, '그 아이'('나'(0))가 좌절감을 느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나'(1)는 귀찮은 일을 싫어하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15 '나'(1)가 그림을 잘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지 못한 이유는 그림 뒷장에 써야 하는 참가 번호를 실수로 잘못 썼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 번호에 해당하는 '나'(0)가 상을 대신 받게 되었다.
- 16 ①의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는 '나'(0)의 심리적 충격과 당혹감을 강조한 표현이다. '나'(0)는 장원 상을 받은 자신의 그림을 보러 강당에 갔으나 장원 자리에 걸려 있는 그림은 자신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충격을 받으며 당혹스러워한다.
- 17 '나'(0)는 장원 상을 받은 그림은 자신이 그린 것이 아니라 사실 사생 대회에서 본 여자아이가 그린 것임을 알게 된다. '나'(0)는 여자아이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자아이가 좌절할 모습을 떠올리지는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나'(0)는 주 선생님의 품에 안겨 울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장원작이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한다.
- ③ '나'(0)는 여자아이가 분명 자신의 그림이 장원작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한다.
- ④ '나'(0)는 실제 장원을 받은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은 정말 잘 그린 그림이고, 이는 자신을 뛰어넘는 재능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 ⑤ '나'(0)는 비슷한 그림에 같은 번호가 써진 것을 본 심사 위원들의 상황을 떠올리며, 혼동을 초래할지도 모르니 자신의 그림은 시상대에서 아예 제외했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다.
- 18 유명한 화가가 된 '나'(백선규)는 '0'의 서술자로, '1'의 '나'와 장원작이 뒤바뀌었던 일로 인해 자신의 재능을 항상 의심하며 노력한다. 성인이 된 후 길에서 상대를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친 것은 백선규가 아니라 '1'의 '나'로, 길에서 우연히 스친 백선규를 알아보지만 가는 길이 다르다고 여겨 말을 걸지 않는다.
- 19 과거 회상에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 성인이 된 '1'의 '나'와 '0'의 '나'(백선규)는 길에서 우연히 스친다. '1'의 '나'는 '백선규'를 알아보지만 서로 가는 길이 다르다고 생각하여 아는 척하지 않는다.

**20** 이 작품은 '0'의 서술자인 '나'(백선규)와 '1'의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현재 시점에서 각자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했다가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온다. 이는 시간적 순서에 따른 사건 전개가 아니라 역순행적 구성 방식에 해당한다.

**활동 응용 문제**

50~53쪽

- 1 ⑤    2 ②    3 ④    4 3인칭 관찰자 시점

**1** '0'의 서술자인 '나'는 주 선생님 앞에서 눈물을 보였던 일을 떠올리며, 창피한 마음에 장원작이 바뀐 것을 말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② '1'의 서술자인 '나'는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책하기보다는 실수와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는 일이 귀찮다고 생각하고 있다.

③ '1'의 서술자인 '나'는 만약 장원작이 바뀐 것을 말했을 때 그 아이가 느낄 죄절감이 자신에게도 느껴졌다고 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④ '0'의 서술자인 '나'가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것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창피함과 부끄러움 때문이다.

**2**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서술자가 타인을 관찰해 그 속마음을 추측하는 것은 1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한다.

**3** 이 작품은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또한 이 작품은 서술자 두 명('0'의 '나'와 '1'의 '나')이 같은 사건에 대해 교차하며 서술함으로써, 동일한 사건에 대한 두 사람의 행동과 생각, 심리가 모두 생생하게 드러난다. '나'의 생각보다는 행동을 중심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4** 3인칭 시점에서는 서술자가 소설 속에 등장하지 않고 작품 밖에서 이야기를 전달한다. 그중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속 사건을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전달한다는 특징이 있다.

**문해력 키우기**

55쪽

- 1 〇    2 ×    3 ×    4 〇    5 과분해서    6 준비한  
7 뒤달한다고    8 초래할    9 이례적    10 속물적  
11 천부적    12 너절한

57쪽

**확인 문제**

- 1 화자    2 시점    3 주제    4 〇    5 ×    6 〇    7 ㉠  
8 ㉡    9 ㉢    10 ㉣

**발전 활동**

**활동 응용 문제**

58~61쪽

- 1 ⑤    2 ①    3 ③    4 ③    5 ③    6 ③

**1** 문학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또는 그런 작품을 일컬으며,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수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설명하는 글은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글로, 문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읽을 책을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책의 주제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흥미를 느끼는가?', '책의 두께, 글자 크기 등을 고려했을 때 읽기에 적당한 분량인가?' 등이 있다. 즉 읽을 책을 선정할 때는 자신의 관심이나 독서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반드시 최근에 많이 판매된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자신의 독서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일정, 읽을 분량 등을 정해 독서 계획을 세우면, 책 읽기를 꾸준히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독서 일지는 스스로 작성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블로그에 올린 감상문을 옮겨 적는 것은 자신의 독서 경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문학 작품에서는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특성에 따라 작품의 주제나 분위기 등이 달라진다. 따라서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특성과 이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보는 이와 말하는 이가 다른 작품에 등장하는지 찾아보는 것은 보는 이나 말하는 이를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책을 소개하는 글을 쓸 때, 책의 내용을 왜곡해서 쓰면 독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책을 소개하는 글은 책의 내용과 어긋나는 내용 없이, 책에 관한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써야 한다.

## 소단원 평가

62~67쪽

- 01 ㉔    02 ㉓    03 ㉑    04 ㉒    05 사람    06 ㉒  
 07 ㉒    08 ㉑    09 ㉔    10 ㉒    11 재(한 줌 재), 하늘  
 12 ㉑    13 ㉔    14 ㉒    15 천수기 선생님    16 ㉒  
 17 ㉔    18 ㉒    19 ㉓    20 ㉑    21 ㉑    22 ㉒  
 23 자신의 재능을 늘 의심하며 최선을 다해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24 ㉓    25 ㉒

01 화자는 나무가 가질 수 있는 꿈으로 '의자, 책상, 계단, 창문틀, 배'를 나열하고 있다. 이는 표현하려는 대상인 '나무의 꿈'을 연쇄적으로 연상한 것이다.

02 이 시는 '되고 싶니', '~할지도 몰라', '~는 거야', '~구나'와 같은 종결 표현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의태어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의성어 '삐걱'을 사용하였다.

② 행은 구분하였지만 연은 구분하지 않았다.

④ 글자 수를 규칙적으로 반복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처음과 마지막의 시행은 서로 다른 내용으로, 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03 이 시의 화자는 나무에게 '자라서 뭐가 되고 싶니'라고 질문하며 나무의 꿈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화자는 나무에게 말을 걸고 있을 뿐,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화자는 나무를 의인화하여 따뜻한 어조로 말을 건네고 있다.

④ 화자는 나무에게 질문을 던지지만, 질문에 대한 답을 화자 자신이 추측하여 말하고 있다.

⑤ 화자는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나무가 현재의 모습 자체가 가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04 화자는 나무를 '의자, 책상, 계단, 창문틀, 배'와 같은 다양한 꿈을 지닌 존재(㉑)이자, 이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㉒)로 보고 있다. 나아가 나무를 꿈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다.

**오답 풀이** ㉑. 나무가 꿈을 실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존재로 규정짓지는 않는다.

㉒. 나무가 바람을 만나 흔들리는 것은 낙약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삶을 충실히 느끼고 있는 것이다.

05 이 시에서 화자는 사람이 아닌 '나무'에게 말을 건네며 사람처럼 대하고 있다. 이는 의인법에 해당하며 화자와 대상 간의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 참고 자료

#### 의인과 활유

의인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  
 ㉑ 나무들이 사워하고 있다.

활유

살아 있지 않은 대상을 살아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  
 ㉑ 훨훨힐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06 화자는 시의 앞부분에서는 나무의 미래와 꿈에 대해 노래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나무의 모습이다. 화자는 지금 바람을 만나 삶을 충실히 느끼고 있는 나무의 모습에 주목함으로써, 꿈의 실현과 상관없이 나무가 현재의 모습 그 자체로도 가치 있음을 강조한다.

07 화자는 나무의 꿈에 대해 궁금해하며 나무의 다양한 꿈과 무한한 가능성을 노래하지만, 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나무는 현재의 모습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전하고 있다.

08 화자는 시적 대상인 나무를 사람처럼 의인화하여 말을 건네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와 나무 사이의 친밀감이 드러나며, 자연과 교감하는 화자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한다.

09 '밟으면 삐걱 소리가 나는(㉑)'에는 청각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청각적인 이미지가 나타나는 시구는 '저 바람 소리를 들어 보렴'이다.

**오답 풀이** ①, ② 목선이 수평선을 넘어가는 모습, 창문틀에 별빛이 들고 나는 모습이 나타나므로 시각적 이미지에 해당한다.

③, ④ 몸을 따뜻하게 데워 주는 모습, 잎사귀를 스치고 지나가는 모습이 나타나므로 촉각적 이미지에 해당한다.

10 나무는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여 꿈이 좌절될 수도 있다. 그러나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도 누군가의 몸을 데워 주는 이타적인 모습을 통해 나무의 또 다른 존재 가치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1 ㉑은 나무가 재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춤추는 모습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대상의 모습이나 대상이 주는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참고 자료

#### 직유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같이', '처럼', '듯이'와 같은 말로 직접 연결하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 털', '여우처럼 교활한 그의 모습'과 같이 사용함.

12 '하지만'이라는 접속어는 시상을 미래에서 현재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화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 즉 나무의 지금 현재의 모습에 주목하게 한다.

13 천수기 선생님은 '나'의 아버지가 학교에 다닐 때 그림에 재능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비록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반대로 화가가 되지 못하고 농사를 짓지만, 그의 아들인 '나'는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여 기회를 주고 싶어 사생 대회에 내보낸다. 선생님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 '나'를 사생 대회에 내보낸 것은 아니다.

14 선생님은 '나'가 장원을 한 기쁨을 아버지와 함께 나누고 싶어 서 술병을 들고 '나'의 집에 찾아온다.

**오답 풀이** ① '나'가 선생님의 지원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나'는 그림보다 축구에 관심이 많았으며, 사생 대회 때문에 축구 결승전을 보지 못해 슬프고 속상해한다.

③ 아버지는 '나'가 장원을 받았다는 말에 씩스럽게 웃었을 뿐, 의심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선생님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사생 대회에 내보낸 결과, '나'가 장원을 한 일에 매우 기뻐한다. 후회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15 (가)에서 '나'는 '그 일'을 회상하며, 그 사건의 썩은 천수기 선생님을 만나면서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천수기 선생님은 '그 일'과 연관된 인물로, 사건 전개에 개연성을 부여한다.

16 '나'는 그림에 재능이 있고, 장원 상을 받을 만큼 훌륭한 그림을 그렸음에도 스스로의 실수 때문에 상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실수와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는 게 귀찮아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현재 '나'는 상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오답 풀이** ① 그림에 대한 '나'의 재능은 아버지와 상관이 없다.

③ (다)에서 '나'는 여자가 힘들게 공부할 거 없다는 아버지의 말을 전혀 듣고 그림에 대한 의욕을 잃는다. 하지만 '나'가 아버지의 생각에 반발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에 성인이 되어 그림을 좋아하고 즐기는 '나'의 모습이 나타난다.

⑤ 자신이 받을 상이 남에게 간 잘못된 일이 발생했음에도 '나'는 이를 바로잡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17 '나'는 자신이 상을 받지 못한 것은 자신의 실수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잘못을 바로잡을 것인지, 그대로 내버려두고 장원 상을 포기할 것인지를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결국 '나'가 그 일을 바로잡지 않은 것에는 자신을 스쳐 가던 그 아이가 가지게 될지도 모르는 좌절감이 약간 느껴진 이유도 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나'에게 어떤 부탁을 한 것은 아니다.

18 (라)에서 '나'는 ㉠에게서 나는 지독한 냄새나 지저분한 모습이 싫어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고 싶어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이 그린 작품의 예술성을 높이 평가한다.

② '나'가 ㉠이 가난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과 ㉠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음을 알 수 있다.

③ '나'는 유명 화가가 된 ㉡이 그린 작품의 예술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그의 실력을 의심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나'는 ㉡의 모습과 냄새가 싫었을 뿐, ㉡을 견제한 것은 아니다.

19 이 글에서 '0'과 '1'의 '나'는 장원 수상자가 바뀐, 같은 사건을 겪는다. 이에 대해 '0'의 '나'는 잘못을 바로 잡고자 하는 마음과 내버려 두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1'의 '나'는 장원 상의 주인이 바뀐 사실을 말해야 한다는 마음과 말할 수 없는 마음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두 인물은 끝내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잘못을 바로잡지 않지만, 이 사건 이후 어른이 되면서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20 이 작품은 두 명의 서술자가 번갈아 교차하며 사건을 서술(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떤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0'과 '1'의 이야기는 초점과 분위기가 달라진다(L).

**오답 풀이** ㄷ. '0'과 '1'의 '나'는 모두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만 전개된다.

ㄹ. 작품에 작가가 직접 개입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21 '0'과 '1'의 '나'는 같은 사생 대회에 나가 비슷한 풍경을 보며 그림을 그렸다. 이 사생 대회에서 '0'의 '나'가 장원을 했지만, 이는 사실 '1'의 '나'가 번호를 잘못 쓴 실수로 인한 것이었다. 장원 작은 실제로 '1'의 '나'의 그림이었지만 '0'과 '1'의 '나'가 모두 사실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0'의 '나'가 상을 받고, '1'의 '나'는 상을 받지 못하였다.

22 (가)에서 '나'(0)가 말하는 '그 일'은 '나'(1)가 받을 뻔했던 장원 상을 '나'(1)의 실수로 인해 '나'(0)가 받았던 일을 말한다. 이때 '나'(0)는 내적 갈등을 겪지만 끝내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나'(0)는 그 일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직업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1)는 그런 상을 받지 않아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을 느끼고 있다.

23 '0'의 '나'는 장원 수상자가 바뀐 이 바뀐 일이 일어난 후 누군가 자신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늘 자신을 의심하면서 살게 된다. 그만큼 노력해서 작품을 그렸고, 뛰어난 화가가 되었다.

평가 기준	확인
늘 자신을 의심하며 최선을 다해 그림을 그렸다는 내용을 썼다.	<input type="checkbox"/>
한 문장으로 썼다.	<input type="checkbox"/>

24 과거 회상에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 성인이 된 '1'의 '나'는 '0'의 '나'(백선규)와 길에서 우연히 스친다. '1'의 '나'는 '백선규'를 알아보지만 서로 가는 길이 다르다고 생각하여 아는 척하지 않았다.

25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입장이 되어 책을 소개하는 내용을 쓸 때는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이 잘 드러나는지, 책의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지, 책에 관한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지 등에 유의해야 한다. 보는 이나 말하는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는지는 이와 같은 글을 쓸 때 유의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 02 경청하고 공감하며 대화하기

### 소단원 한눈에 보기

70~71쪽

- 1 (1) 경청 (2) 이해 (3) 시선
- 2 토끼, 이야기
- 3 (1) × (2) ○ (3) ○
- 4 (1) 격려 (2) 협력적 (3) 비슷한
- 5 (1) × (2) ○ (3) ○
- 6 (1) 주의 (2) 입장 (3) 조언

### 활동 응용 문제

74~81쪽

- 1 ①    2 ④    3 ①    4 ②    5 ④    6 ④    7 상황,  
공감    8 ②    9 ④    10 ⑤    11 ⑤

- 1 토끼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조용히 다가와 테일러가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테일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 주었다. 이는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에 해당한다.
- 2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상대가 말을 이어 가도록 의욕을 북돋워 주고, 상대와 신뢰를 쌓아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경청이 상대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다.
- 3 민서는 부상 때문에 배구 대회에 나가지 못하게 된 것에 속상해하고, 같은 팀 친구들이 자신을 원망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 4 민서의 말을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에 대해 조언한 친구는 없다. 또한 상대의 말에 조언을 하는 것은 상대의 감정과 입장에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대회에 나가려고 연습한 건데”와 같이 민서의 말을 요약하고, “연습하다가 다쳐서 더 속상한 거구나.”와 같이 민서가 한 말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  
 ③ “자세히 말해 줄 수 있어?”라고 하며 민서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 가도록 질문하고 있다.  
 ④ “그렇구나.”와 같이 맞장구를 치고, “매일 점심시간마다 열심히 연습하는 거 봤었는데”와 같이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⑤ 민서와 비슷한 경험으로 장기 자랑에서 노래를 맡았는데 심한 감기에 걸렸었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 5 상대의 감정과 입장에 공감하며 대화하면 상대가 편안하게 말을 이어 갈 수 있고, 상대가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감정적으로는 상대의 불안감이나 속상함을 덜어 줄 수 있다.
- 6 할머니는 물건을 쉽게 버리지 말고 고쳐 쓰고 아껴 써야 한다는 가치관에 따라 누래진 경호의 옷을 정성을 다해 하얗게 세탁한다. 그러나 경호는 할머니의 가치관을 고려하지 않고 자

신의 기준에 따라 오래된 옷은 버리는 것이 낫다고 하며, 할머니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 7 할머니는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과거의 습관 때문에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이에 경호는 앞으로는 할머니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할머니의 생각과 감정을 살피며 공감하는 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 8 경청과 공감이 필요한 상황은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행복하거나 즐거운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혼자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은 누군가가 말을 들어 주거나 상대의 말과 감정을 이해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경청과 공감이 필요한 상황과 거리가 멀다.
- 9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화를 할 때는 침묵을 유지하기보다는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대화에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 10 제시된 대화에서 서우가 현재의 말에 ‘무슨 일로 혼이 난거야?’, ‘많이 속상했구나.’와 같이 적절한 질문을 하면서 격려했다면 더욱 원활하게 대화가 지속되었을 것이다.
- 11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화를 하면 상대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ㄷ)할 수 있고, 상대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ㄹ)할 수 있다. 또한 상대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며, 상대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문해력 키우기

83쪽

- 1 존중하다    2 참여하다    3 원활하다    4 공감하다  
5 ○    6 ○    7 ○    8 ×    9 ㉠    10 ㉡    11 ㉢  
12 ㉣

### 확인 문제

85쪽

- 1 ×    2 ○    3 ○    4 ㉠    5 ㉡    6 ㉢    7 ㉣  
8 협력적    9 긍정적    10 객관적

### 발전 활동

### 활동 응용 문제

86~87쪽

- 1 ④

1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화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고, 상대가 하는 말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상대의 감정까지 이해하며 나누는 대화를 말한다. 제시된 대화 중 언니의 노력을 인정하고 함께 기뻐하는 대화(ㄴ), 부모님과 갈등하는 친구의 상황을 주의 깊게 듣는 대화(ㄹ)가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화에 해당한다.

**소단원 평가** 88~91쪽

01 ②    02 ③    03 ④    04 ③    05 ①    06 ④  
 07 ⑤    08 ①, ⑤    09 ④    10 ③    11 ②  
 12 ⑤    13 ④    14 ④    15 ⑤    16 ①    17 ④  
 18 상대가 겪은 문제와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01 토끼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먼저 꺼내지 않고 상대가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으며, 상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 주었다.

02 토끼는 테일러가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 주고, 상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 주었다. 이에 테일러는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토끼에게 말했고, 다시 행동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03 제시된 상황에서는 수호가 승우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승우는 수호를 쳐다보지도 않고, 휴대 전화만 들여다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수호는 승우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것 같다고 오해하게 된다.

- 오답 풀이** ① 승우는 수호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승우가 수호를 오해한 것은 아니다.  
 ② 승우는 '잘 듣고 있는데 수호가 왜 그러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수호의 말을 못 들은 것이 아니다.  
 ③ 승우가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은 수호가 한 말의 내용이나 의도 때문이 아니라 휴대 전화를 보는 데 몰두했기 때문이다.  
 ⑤ 수호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해서가 아니라, 승우가 휴대 전화를 보느라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이다.

04 경청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화 상대에게 말을 이어 가도록 의욕을 북돋워 주고, 상대와 신뢰를 쌓아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한다. 그러나 경청한다고 해서 경청한 사람의 생각을 말한 사람의 의도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경청의 필요성과 방법**

개념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것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와 신뢰를 쌓을 수 있음.</li> <li>• 상대와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함.</li> <li>• 대화 상대에게 말을 이어 가도록 의욕을 북돋워 줌.</li> </ul>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를 향해 바른 자세를 취하고, 시선을 상대에게 고정함.</li> <li>•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적절한 반응을 보임.</li> </ul>

05 남학생은 내일 혼자서 강아지를 돌봐야 한다는 여학생의 말에 대해 그럼 안경을 쓰면 되겠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는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아 엉뚱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남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려는 태도이다.

06 <보기>의 대화에서 승우는 슬기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다. 이에 슬기는 더 이상 말을 이어 갈 수 없다고 느꼈으며 둘의 대화가 중단되었다. 슬기가 하려던 말을 끝까지 할 수 있게 하려면 승우가 슬기의 말에 담긴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답을 해야 한다. 슬기는 승우가 부탁한 사진을 찾았다고 말했다므로, 승우는 슬기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07 상대가 하는 말의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질문하는 것은 관심의 표현이 될 수 있으며, 상대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상대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은 경청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다.

08 민서는 손에 부상을 입어 배구 대회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속상해하고 있으며, 대회에 나가지 못하게 되어 같은 팀 친구들이 자신을 원망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09 공감하며 대화한다는 것은 상대가 하는 말과 그 말에 담겨 있는 감정까지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공감하며 대화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 오답 풀이** ①, ⑤ 상대가 겪은 문제와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상대의 말을 요약하여 말하기, 상대가 한 말의 의도를 파악하여 다시 말하기는 상대가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  
 ②, ③ 상대의 말에 주의 집중하며 경청하기, 상대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고 격려하기 등은 상대가 편안하게 말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10 (가)에서 경호의 누레진 옷을 깨끗하게 삶고 있는 할머니에게, 경호는 오래된 옷은 버리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할머니는 경호를 위해 정성을 다해 옷을 하얗게 세탁하였지만, 경호가 그 마음을 몰라주었으므로 속상한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11 (나)에서 경호는 할머니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리고, 할머니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ㄱ)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 있다. 또한 할머니의 대답을 들은 후 할머니의 생각과 감정이 어땠는지 이해하고, 호응하는 표현(ㄷ)을 하였다.

12 경호가 할머니와 대화할 때처럼,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상대와 대화할 때는 상대의 상황과 처지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13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화는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의 입장에서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의 입장에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하는 것은 상대의 입장이 아니므로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화라고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화를 하였는지 점검하는 기준**

- 상대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 상대의 감정과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 상대의 말에 공감하는 표현을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 상대에게 경청과 공감을 표현하는 자세, 목소리, 표정 등을 활용하였다.

14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화를 하면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상대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정보의 활용이나 문제 해결은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와는 관련이 적다.

15 <보기>의 상황에서 '나'가 상대의 감정과 입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며, 대화에 협력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가 금방 중단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가 상대의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격려하며 질문을 했다면 대화는 계속 이어졌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② '나'는 친구의 고민에 공감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은 듯이 말했다. 따라서 친구는 '나'와의 대화를 통해 속상한 마음이 누그러지거나 위로를 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③ '나'는 친구의 상황에 공감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으며, 친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보기>에 나타나지 않는다.

④ '나'가 친구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나 친구가 오해를 하는 모습은 <보기>에 나타나지 않는다.

16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화를 할 때는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고, 상대가 하는 말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감정까지 이해하며 대화해야 한다. '무슨 일 있었어? 나한테 말해 봐.'는 상대가 하고자 하는 말에 관심을 표현하며 보다 자세히 이야기를 이어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질문이므로 ①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17 복도에서 친구와 마주쳐도 모른 척 지나갈 때가 있다는 지수의 말에, 민우는 "친구가 인사를 안 해서, 사이가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구나?"라고 반응하고 있다. 이는 상대가 한 말에 담겨 있는 의도를 파악하여 다시 말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상대가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

해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상대와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

18 ㉔은 경청하고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 중, 상대가 겪은 문제와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상대는 비슷한 경험담을 듣고 자신의 고민에 대한 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상대가 겪은 문제와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였다는 내용을 썼다.	<input type="checkbox"/>
한 문장으로 썼다.	<input type="checkbox"/>

**대단원 평가**

96~99쪽

01 ②	02 ⑤	03 ⑤	04 ②	05 지금	06 ③
07 ②	08 ①	09 ④	10 (가), (나), (다)	11 ⑤	
12 ④	13 ㄱ, ㄴ	14 ④	15 ③		

01 이 시에서는 나무가 꿈을 실현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나무가 현재의 모습 그 자체로 가치 있다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난다. 이는 미래보다 현재가 더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되고 싶니', '-할지도 몰라', '-는 거야', '-구나' 등과 같은 종결 표현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나무를 사람처럼 의인화하여 듣는 이로 설정하고 말을 건넌으로써 나무와의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④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등 감각적 이미지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나무의 꿈과 현재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⑤ 나무가 가질 수 있는 꿈을 '의자, 책상, 계단, 창문틀, 배'로 연쇄적으로 연상하여 나무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02 <보기>에서 ㉔는 나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의미하는 시어이고, ㉕는 나무가 꿈을 이루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시어이다. 이 시에서 ㉕는 비록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돕는 가치 있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

03 이 시의 화자는 다양한 꿈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대상인 나무에게 따뜻한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자신의 꿈이 아니라, 나무의 꿈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② 이 시에서 나무는 화자 자신이 아니라, 화자가 바라보며 노래하고 있는 대상이다.

③ 화자는 나무에게 질문을 건네고 있지만,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추측해서 말하고 있다.

④ 화자는 나무에게 따뜻하고 희망적인 어조로 말하고 있다.

04 이 시에서 화자는 나무의 꿈에 대해 노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꿈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나무의 현재 모습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화자는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무의 현재 모습에 주목하면서 나무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있다.

05 이 시는 '지금'이라는 시어를 통해 나무가 품은 미래의 꿈으로부터 시상을 전환하여 나무의 현재 모습에 주목하게 한다. 이는 꿈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나무는 현재의 모습 그 자체로 가치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06 이 작품은 주인공이 유년 시절 사생 대회에서 장원 상의 주인이 뒤바뀐 사건을 겪으며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특히 '나'(0)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자신이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아 그림 연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보다 뛰어난 재능을 지닌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자신의 재능을 의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여 훌륭한 화가가 되었다.

07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를 서술자라고 한다.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가 작품 속에 '나'로 등장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한다(㉠). 따라서 작품 속 서술자인 '나'는 자신의 경험과 속마음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

08 (다)에서의 '나'(1)는 과외 선생님께서부터 그림에 재능이 뛰어나다는 말을 들었지만,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되지 힘들게 공부할 필요 없다는 아버지의 말을 전해 듣고 화가의 꿈을 키우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라)에서 '나'(0)는 집안 형편으로 인해 그림 도구를 마음껏 사지 못하고 짝막한 크레파스와 스케치북 뒷면으로 그림 연습을 했다.

③ (마)에서 '나'(0)는 장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잘 그린 그림을 발견하고 '나'를 뛰어넘는 재능이라고 생각했다.

④ (나)에서 '나'(0)는 처음 나간 사생 대회에서 장원을 하였고 이에 대해 선생님이 놀라는 모습이 나타난다.

⑤ (라)에서 '나'(0)는 자신이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았으며, 자신은 다른 아이들처럼 연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09 이 글에 등장하는 두 명의 서술자인 '0'의 '나'와 '1'의 '나'는 유년 시절에 경험했던 동일한 사건(사생 대회에서 장원 상의 주인이 뒤바뀐 사건)을 각자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두 서술자는 동일한 사건 속에 함께 등장하며 자신의 이야기에서 상대방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

② 두 서술자는 같은 학교에 다니며 같은 사생 대회에 나갔으므로 동일한 시간대를 사는 서로 다른 인물이다.

③ 사생 대회에서 장원 상의 주인이 뒤바뀐 같은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⑤ 두 서술자는 자신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지 못한다.

### 참고 자료

#### 「내가 그린 히말라야시다 그림」의 서술 방식

- '0'의 '나'와 '1'의 '나'가 작품의 서술자이자 주인공으로 등장함.
-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서술자 두 명이 교차하여 서술함.
- '0'과 '1'의 '나'가 겪은 같은 사건에 대한 각자의 심리와 대응이 효과적으로 드러남.

10 (가), (다)는 '나'(0)의 유년 시절에 있었던 사건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나)는 '나'(1)가 과거의 일과 그 당시 만났던 아이를 떠올리는 장면이므로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반면 (라)는 어른이 된 '나'(1)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백선규를 보지만 아는 척하지 않고 지나가는 장면으로, 현재에 해당한다.

11 '0'의 '나'와 '1'의 '나'는 모두 사생 대회에서 장원 상의 주인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된다. 두 사람은 모두 사실을 말할 것인지 말하지 않을 것인지, 잘못을 바로잡을 것인지 그냥 내버려 둘 것인지의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지만, 끝내 아무에게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사생 대회에서 상을 받은 것은 '0'의 '나'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 '1'의 '나'가 그린 그림이었으며, '1'의 '나'는 상을 받지 못하였다.

② 상을 받지 못했지만 그런 상을 받지 않아도 행복하다고 하며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은 '1'의 '나'이다.

③ 그림 뒷장에 제 번호를 쓰지 않고 실수로 다른 번호를 쓴 것은 '1'의 '나'이다.

④ '0'의 '나'는 자신보다 장원 상의 진짜 주인이 더 재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였으며, 스스로의 재능을 의심하며 살아왔다.

12 <보기>에서 승우는 상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승우의 반응에 슬기는 말을 더 이어 가지 못했고,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13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향해 바른 자세를 취하고 집중(㉠)해서 들어야 하며, 상대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상대의 말에 맞장구치며 듣는 것(㉡)이 좋다.

**오답 풀이** ㉠. 경청을 할 때에는 상대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이 좋다.

㉡. 경청을 할 때 상대의 말하기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4 경호는 오래된 옷은 버려도 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할머니는 물건은 고쳐 쓰고 아껴 써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가치관이 다른 상대와 대화할 때는 상대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며 대화해야 한다. 또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살피고 그에 호응하며 대화해야 한다.

15 공감하며 대화하는 것은 상대가 하는 말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상대의 감정까지 이해하며 나누는 대화를 의미한다. '그런 걱정을 하다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구나. 다친 손이나 잘 치료해.'라고 말하는 것은 민서가 부상 때문에 대화에 나가지 못해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너무 예민하다며 핀잔을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민서가 말을 계속 이어 갈 수 있도록 질문을 하고, 격려하고 있다.

② 민서의 말을 요약하고, 말의 의도를 파악하여 다시 말하고 있다.

④ 민서가 하는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⑤ 민서가 겪은 문제와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참고 자료**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화하는 방법**

상대가 편안하게 말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의 말에 주의를 집중하며 경청하기</li> <li>• 상대의 말에 적절한 표현으로 맞장구치기</li> <li>• 상대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고 격려하기</li> </ul>
상대가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의 말을 요약하여 말하기</li> <li>• 상대가 한 말의 의도를 파악하여 다시 말하기</li> <li>• 상대가 겪은 문제와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li> </ul>

**한 걸음 더 서술형 문제**

100~101쪽

01 화자는 나무를 다양한 꿈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

02 화자와 나무 간의 친밀감을 느끼게 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화자의 따뜻한 마음이 잘 드러난다.

03 나무는 지금 모습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이다.

04 이 글의 서술자는 '0'의 '나'와 '1'의 '나'로 두 명이다. 모두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한다.

05 • '0'의 '나': 주 선생님 앞에서 눈물을 보였기 때문에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 '1'의 '나': 실수와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이 귀찮았고, 그 결과로 한 아이가 좌절감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06 상대와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상대와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상대가 말을 이어 가도록 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다.

07 상대의 말을 요약하여 말했다.

01 이 시의 화자는 나무에게 말을 건네며 나무의 다양한 꿈을 제시하고, 그 꿈을 응원하고 있다. 화자는 나무를 다양한 꿈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가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꿈을 실현하지 못하더라도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평가 기준	확인
나무를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내용을 썼다.	<input type="checkbox"/>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input type="checkbox"/>

02 이 시의 화자는 나무를 의인화하여 사람처럼 대하고 있다. 나무에게 질문을 던지고 말을 건네는 화자의 어조를 통해 나무와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나무를 대하는 화자의 따뜻한 마음이 드러난다.

평가 기준	확인
화자와 나무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	<input type="checkbox"/>
나무를 대하는 화자의 따뜻한 마음이 드러난다는 내용을 썼다.	<input type="checkbox"/>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input type="checkbox"/>

03 [A]에서 화자는 '지금' 나무의 모습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꿈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나무는 현재의 모습 그 자체로 가치 있다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난다.

평가 기준	확인
나무는 지금 모습 자체로 가치 있다는 내용을 썼다.	<input type="checkbox"/>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input type="checkbox"/>

04 이 글의 서술자는 '0'의 '나'와 '1'의 '나'로, 두 명의 서술자가 서로 교차하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해당한다.

평가 기준	확인
서술자가 두 명이라는 내용을 썼다.	<input type="checkbox"/>
1인칭 주인공 시점이 교차된다는 내용을 썼다.	<input type="checkbox"/>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한다는 특징을 썼다.	<input type="checkbox"/>

05 이 글에서 '0'의 '나'와 '1'의 '나'는 상의 주인이 뒤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않았다. '0'의 '나'는 주 선생님의 품에 안겨 울었다는 부끄러움 때문에 사실을 말할 수 없었고, '1'의 '나'는 실수와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이 귀찮고 그 결과로 한 아이가 좌절감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다.

평가 기준	확인
'0'의 '나'는 주 선생님 앞에서 울었다는 부끄러움 때문이라는 내용을 썼다.	<input type="checkbox"/>
'1'의 '나'는 귀찮았고 한 아이가 좌절감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썼다.	<input type="checkbox"/>

- 06 상대의 말을 경청하면 상대가 내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고, 적절한 반응과 질문으로 말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의욕을 북돋아 주어 원활한 대화를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보기>의 대화를 참고하여 상대의 말을 경청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두 가지 이상 알맞게 썼다.	<input type="checkbox"/>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input type="checkbox"/>

- 07 민우는 지수의 고민을 들은 뒤 친했던 친구와 멀어진 것 같아서 고민이라는 지수의 말을 요약하여 다시 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상대의 말을 요약하여 말했다는 내용을 썼다.	<input type="checkbox"/>

**한 걸음 더 고득점 문제**

102~105쪽

- 01 ③    02 ④    03 ③    04 ②    05 ④    06 ②  
07 ④, ⑤    08 ②    09 ⑤    10 ②    11 ④    12 ⑤

- 01 이 시의 화자는 나무를 사람처럼 대하며 친근하게 말을 건네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나무의 꿈을 응원하고 나무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며 희망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시의 화자는 '의자, 책상, 계단'과 같이 나무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꿈을 연쇄적으로 연상하여 나열하고 있다.  
② 나무에 화자를 빗대고 있지 않다.  
④ 이 시는 나무의 성장과 꿈, 가능성을 응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에서 현실에 안주하는 인간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이 시의 화자는 꿈이 많은 나무를 응원하며 꿈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의 모습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02 '내 잎사귀를 스치고 가는'은 나무에게 다가오는 바람을 촉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지, 나무가 지나간 과거를 떠올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 03 '바람의 춤을 따라 흔들리고 있구나'는 현재 바람을 만나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러한 나무의 모습을 보고 화자가 '지금이 바로 너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바람의 춤을 따라 흔들리는 것은 나무가 현재의 삶을 충실히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04 이 시의 화자는 나무가 '의자, 책상, 계단' 등과 같이 다양한 꿈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모습을 응원하며, 이처럼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있다. 또한 나무가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을 가정하며 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존재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점을 들어 미래보다는 현재가 중요하다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를 추천하기에 적절한 사람은 꿈은 있지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이다.

- 05 이 글에서 '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이자 주인공으로 작품 속에 등장한다. 또한 두 명의 서술자가 '나'로 등장하여 교차하며 각각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 06 '0'의 '나'는 유년 시절에 사생 대회에서 다른 사람의 실수로 자신이 장원 상을 받게 되는 사건을 겪는다. 그 사건을 통해 '나'는 자신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자신을 의심하며, 화가가 된 후에는 풍경화를 그리는 적이 없다. 따라서 '0'의 '나'가 유년 시절에 겪었던 사건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7 <보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글이고,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교차되는 글이다. 따라서 <보기>의 서술자를 이 글과 같이 두 서술자의 시점이 교차하는 글로 바꾸어 쓴다면 '나'와 점순이 서술자가 되어 번갈아 가며 자신의 속마음과 입장을 전달할 것이다.
- 08 '나'는 주 선생님에게서 사생 대회에서 자신이 장원을 했다는 말을 듣자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이를 통해 '나'가 감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나'는 자신의 재능을 인정 받았다는 기쁨에 선생님 앞에서 눈물을 보인다.
- 09 '나'(1)는 자신이 받을 장원 상이 다른 사람에게 간 것을 알았지만 실수와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기가 귀찮고, 한편으로 결과를 바로잡았을 때 장원 상을 받은 아이가 좌절할 것을 염려했다. ⑤는 '장원작이 네가 그린 그림이어서 당혹스러웠지?'와 같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같은 상황이었다면 자신 또한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나'(0)는 장원작이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는 사실과 자신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좌절하고 있으므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내용이 아니다.  
②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서 장원 상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사람은 '나'(1)이다.  
③ '나'(0)에게 모든 걸 바로잡아야 했다고 말하는 것은 공감하는 내용이 아니다.  
④ 솔직하게 사실을 말했어야 한다는 내용은 '나'(1)의 행동에 반대되는 생각이므로 공감하는 내용이 아니다.
- 10 민지는 지난 시험에서 계산 실수를 많이 했고,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할까 봐 걱정이 된다는 진서의 말을 듣고 "네 말은 이번에도 실수를 많이해서 실력 발휘를 못할까 봐 걱정이 된다는 거지?"라며 상대의 말을 요약하여 말하고 있다.
- 11 공감하며 대화하기 위해서는 ④와 같이 상대의 말에 적절한 질문을 던지며 상대가 편안하게 말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2 태오는 동생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지 못한 것을 성찰하며 앞으로는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화를 하려고 다짐하고 있다. ⑤는 상대가 자신의 상황에 맞춰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화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 2) 예리하게 읽고, 배려하며 쓰고

### 01 이해하고 비판하며 읽기

#### 소단원 한눈에 보기

110~111쪽

- 1 (1) 정보 (2) 적절성 (3) 설명 방법 (4) 기억
- 2 (1) 정의 (2) 비교 (3) 구분 (4) 인과
- 3 (1) 논증 (2) 예상 반론 (3) 귀납
- 4 (1) 연역 (2) 비판적
- 5 (1) × (2) ○ (3) ○

#### 제재 「왜 동물원이 문제일까?」

#### 스스로 확인하기

114~121쪽

- (1) 해양 (2) × (3) × (4) 창경원 (5) 관람 (6) ○ (7) × (8) ×  
(9) 다양성

#### 내용 확인 문제

114~121쪽

- 1 ④    2 ④    3 ㉠ 정의 ㉡ 구분    4 ②    5 창경원을  
창경궁으로 복원하지는 여론으로 인해 창경궁 복원 사업이 시작되  
었기 때문이다.    6 ②    7 ④    8 ③    9 ③    10 ④  
11 ②

- 1 이 글은 동물원의 개념, 동물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직종,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원, 동물원의 형태 변화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 동물원과 관련한 문제점과 해결 방법은 나타나지 않는다.
- 2 식생 관리자는 나무나 풀 등의 식물을 관리하고, 부러진 나뭇가지 등이 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치하여 동물에게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큐레이터는 동물원에 어떤 동물을 들여오고 전시할 것인지 계획하고 결정하는 직업으로, 동물에게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처음' 부분에서 '동물원'이라는 말에서 떠오를 수 있는 기억 중 하나로 평소에 보기 힘든 동물을 구경했던 순간을 제시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② '가운데 1'의 2문단에서 주 키퍼는 육상 동물을, 아쿠아리스트는 해양 동물을 주로 관리한다고 하였다.

③ '가운데 1'의 2문단에서 주 키퍼는 동물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일을 하고, 수의사는 동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 키퍼와 수의사 모두 동물의 건강 상태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⑤ '가운데 1'의 1문단에서 동물원에는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 크게 동물을 직접 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3 ㉠에는 동물원의 개념을 설명하는 정의의 방법이, ㉡에는 동물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동물을 직접 대하는가를 기준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구분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4 ㉠에서는 인과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원인 창경원이 인기가 많았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설명하였으며, 생활 공간에서 보기 힘든 동물인 호랑이, 사자, 곰을 예시의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5 1960년대 이후, 창경궁을 훼손하여 만든 창경원을 본래의 창경궁으로 복원하지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1983년에 창경궁 복원 사업이 진행되어 동물원이 과천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6 방문객의 관람을 위해 동물을 한 공간에 가두어 두고 전시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던 이전의 동물원과 달리, 오늘날의 동물원은 동물 복지를 위해 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동물의 즐거움을 방문객의 즐거움보다 우선시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오늘날의 동물원은 동물을 위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여 동물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③, ⑤ 최근에는 동물과 방문객 사이의 벽을 없애 방문객이 직접 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는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는 동물원이 등장했다.

④ 오늘날의 동물원은 전시 공간에 동물이 본래 살던 자연과 유사한 환경을 재현하고 있다.

7 이 글의 '끝' 부분에서는 독자에게 '동물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의 동물원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동물원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독자가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8 우탄은 동물 공연에 동원된 후, 공연에 나서서 것을 거부하고 사육사를 공격하거나 좁은 방에서 나오지 않으려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였으므로 동물 공연에서 고통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랑우탄은 인간처럼 자의식을 가지는 비인간 인격체이므로, 우탄이 자의식이 없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9 글쓴이는 ㉠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며 동물원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의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코끼리와 호랑이를 예로 들어 동물원의 환경이 동물에게 악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동물원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글쓴이의 주장에 해당한다.

② 동물원은 동물을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도구로 만든다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오랑우탄의 사례를 들고 있으나, 관련된 통계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④ 동물원이 동물의 본성을 고려하지 않아 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전문가의 경고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⑤ 동물원이 동물에게 끼치는 악영향을 코끼리와 호랑이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으나 동물에게 필요한 환경 조성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10 ㉠은 동물원을 폐지하지는 주장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은 이러한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논증의 구성 요소**

주장	글쓰기가 내세우는 핵심적인 의견
이유	글쓰기가 왜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를 뒷받침하는 주관적 요인
근거	역사적 과학적 사실, 전문가의 견해, 통계 등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예상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	독자가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대 의견과 이에 대한 글쓰기의 비판

11 글쓰기는 동물원이 동물의 본성을 고려하지 않아 동물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동물을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도구로 만들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활동 응용 문제**

122-127쪽

- 1 ④      2 ⑤      3 ②      4 ②      5 ㉠ 연역 ㉡ 귀납  
6 ⑤      7 ⑤

1 설명하는 글은 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설명하려는 대상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주장을 직접적으로 내세우기 위해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2 동물원에서 일하는 사람을 직접 동물을 돌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는 것은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으로, 설명 방법 중 구분에 해당한다. 인과는 원인에 따른 결과나 결과에 대한 원인을 밝혀 설명하는 방법이다.

**오답 풀이** ① 호랑이와 사자의 공통점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을 밝혀 설명하는 비교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사자와 호랑이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차이점을 밝혀 설명하는 대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동물원의 개념을 풀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어떤 대상의 개념이나 뜻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정의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동물을 대하는 직업으로 주 키퍼와 수의사라는 예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예시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글쓰기는 '동물원은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동물원의 환경은 동물의 본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환경이 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동물들이 본능에 따라 스스로 생활 환경에 적응한다는 내용은 글쓰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③ '동물원은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의 이유에 해당한다.

④, ⑤ '동물원의 환경은 동물의 본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는 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이유에 대한 근거에 해당한다.

4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글쓰기의 주관적인 의견은 근거로 적절하지 않으며, 역사적·과학적 사실이나 전문가의 견해, 통계 자료 등이 근거 자료로 적절하다.

**참고 자료**

**근거의 유형**

사실, 사건	실제로 존재한 사실이나 실제로 발생한 사건 등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정보
증언	권위가 있는 전문가의 증언이나, 실제로 경험한 당사자의 증언, 여론과 같은 일반인의 증언 등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것
통계 자료	현상, 대상, 의견을 양적으로 수치화한 자료

5 ㉠은 '가수는 노래를 잘한다.'라는 일반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현지는 노래를 잘한다.'라는 개별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에 사용된 논증 방법은 연역이다. 한편 ㉡은 '서우, 지호, 우리가 노래를 잘한다'라는 개별적인 사실에서 '가수는 노래를 잘한다.'라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에 사용된 논증 방법은 귀납이다.

6 '동물원은 동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인간만을 위한 시설이다.'라는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본성을 고려하지 않은 동물원의 환경이 동물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과 동물

원이 동물을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도구로 만드는 현상을 제 시해야 한다.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은 제시된 결론과 무관하다.

7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글에 사용된 논증 방법이 글쓴이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논증 방법을 사용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적절한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문해력 키우기**

129쪽

- 1 ×    2 ×    3 ○    4 ×    5 조치    6 조성한  
7 객관적    8 존속되어야    9 왜곡    10 동원    11 예방  
12 총족

**확인 문제**

131쪽

- 1 예시    2 차이점    3 인과    4 기준    5 ×    6 ○  
7 ○    8 ⊕    9 ⊖    10 ⊕

**발전 활동 「논증의 오류를 조심해」**

**활동 응용 문제**

132~133쪽

- 1 ⑤    2 ⑤

1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부분을 전체로 착각하여 저지르는 오류로, 소수의 사례를 근거로 하여 전체의 속성을 일반화할 때 발생한다.

**오답 풀이** ① 올바른 논증으로 보여도 자세히 살펴보면 논리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논증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② 순환 논증의 오류는 주장이나 의견에 대한 이유나 근거로, 그 주장이나 의견을 다시 제시할 때 발생하는 오류이다.

③ 논증에 오류가 있는 경우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④ 흑백 논리의 오류는 대상에 대한 판단을 두 가지 가능성에 한정하여 사고함으로써 그 중간 단계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오류이다.

2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대상에 대한 판단을 두 가지 가능성에 한정하여 사고한다면 흑백 논리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고려해야 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소단원 평가**

134~137쪽

- 01 ①    02 ④    03 a 차이점 b 대조    04 ⑤    05 ②  
06 ④    07 ④    08 ①    09 ⑤    10 ④    11 ②

12 동물원은 멸종 위기종을 보전하지 못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역할도 하지 못한다.    13 ②    14 순환 논증의 오류

01 이 글은 동물원의 개념, 시대에 따른 동물원의 형태 변화 등 동물원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02 ㉠은 동물을 직접 대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동물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나누는 구분의 설명 방식을 활용한 문장이다. 이와 같은 설명 방법이 쓰인 문장은 시를 문장의 구성 방식에 따라 나누어 설명한 ④이다.

**오답 풀이** ① 사과가 떨어지는 원인을 설명하는 인과가 사용된 문장이다.

② 인권의 개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정의가 사용된 문장이다.

③ 자연재해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예시가 사용된 문장이다.

⑤ 바이올린과 첼로를 견주어 차이점을 밝혀 설명하는 대조가 사용된 문장이다.

03 ㉠에서는 대조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주 키퍼와 아쿠아리스트가 관리하는 동물들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04 큐레이터와 식생 관리자는 동물원에서 동물을 직접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라)에서 비교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적절하다.

05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지내는 생활 공간은 전시 공간, 휴식 공간 등 여러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와 같은 질문의 답으로 활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설명 방법은 분석이다.

06 (사)는 글의 ‘끝’ 부분으로,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독자에게 동물원이 변화해야 할 방향을 고민해 볼 것을 제안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07 이 글은 주장하는 글로, 어떤 문제에 대해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쓴 글이다. 주장하는 글을 통해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간결하고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이 글에서 글쓴이가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독자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주장하는 글은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바탕으로 독자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논증이란 이유와 근거를 들어 주장이 참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글쓴이는 귀납 논증, 연역 논증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③ 글쓴이는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밝히기 위해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⑤ 글쓴이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코끼리, 호랑이, 우탄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08 (나)~(라)에서는 코끼리, 호랑이, 우탄의 예를 들어 동물원이 동물에게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들을 바탕으로 동물원이 인간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는 귀납 논증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논증 방법의 종류**

연역 논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제들이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인 논증 방법</li> <li>•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하여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를 결론으로 이끌어 냄.</li> </ul>
귀납 논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인 사실이나 현상을 바탕으로 참일 가능성이 높은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 방법</li> <li>• 개별적인 사실이나 현상으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결론을 이끌어 냄.</li> <li>• 두 사물이나 현상의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도 귀납 논증에 해당함.</li> </ul>

09 글쓴이는 ㉠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물원에서 충분히 활동하지 못해 관절염과 같은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코끼리와 전시실에서 방문객에게 노출되어 스트레스를 받는 호랑이를 예로 들고 있다. 그리고 ㉡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물 공연에 동원되어 고통을 겪는 우탄의 예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예는 객관적인 사실이며 동물원이 동물에게 끼친 악영향을 잘 드러내므로, 근거가 글쓴이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0 (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②, ③과 같이 멸종 위기종이 동물원에서 폐사하고 있다는 자료나 ①, ⑤와 같이 인공적인 환경에서 관리된 동물이 야생에서 적응하지 못한다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④는 동물원의 동물을 관람하는 아이들이 생태 감수성을 키우기 어렵다는 내용이므로 (나)와 거리가 멀다.

11 (다)에는 '인간을 비롯해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모든 생명체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와 '동물원의 동물 역시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생명체이다.'라는 일반적인 사실들을 전제로 들어 '동물원의 동물은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라는 개별적인 결론을 내리는 연역 논증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연역 논증이 사용된 예는 ㄱ과 ㄴ이다. ㄱ은 '포유류는 새끼에게 젖을 먹인다.'라는 전제로부터 '개는 새끼에게 젖을 먹인다.'라는 개별적인 사실을 이끌어 냈으며, ㄴ은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면 0점 처리된다.'라는 전제로부터 '찬기의 국어 점수는 0점이 될 것이다.'라는 개별적인 사실을 이끌어 냈다.

**오답 풀이** ㄴ. 재작년 여름, 작년 여름, 올해 여름에 태풍이 왔다는 개별적인 현상으로부터 매년 여름마다 태풍이 온다는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 낸 귀납 논증이다.

ㄷ. 연우, 리아, 준수의 개별적인 예로부터 '책을 많이 읽는 학생들은 대체로 성적이 좋다.'라는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 낸 귀납 논증이다.

12 ㉠을 반박하려면 동물원에서 보호하던 멸종 위기종이 오히려 동물원에서 폐사하고 있다는 점과 동물원이라는 인공적인 환경에서 관리된 동물은 야생으로 돌아가더라도 적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동물원은 멸종 위기종을 보전하지 못하고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동물원은 멸종 위기종을 보전하지 못하고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썼다.	<input type="checkbox"/>
한 문장으로 썼다.	<input type="checkbox"/>

13 ②는 아기는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라는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하여 아기인 동생에게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개별적인 원리를 결론으로 이끌어 낸 연역 논증의 예시이다. ②의 논증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논증의 오류의 다른 유형**

무지의 오류	어떤 주장이 거짓이라고 입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나 근거로 하여 참이라고 추론하거나, 어떤 주장이 참이라고 입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나 근거로 하여 거짓이라고 추론하는 이유 ㉠ 귀신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귀신은 존재한다.
거짓 원인의 오류	두 사건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발생한 것만으로 그들 간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오류 ㉠ 닭이 울자 해가 떴다. 즉, 닭이 해를 뜨게 만든 것이다.

14 <보기>에서는 '학생이라면 학교 규칙을 따라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학교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학생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주장이나 의견에 대한 이유나 근거로, 그 주장이나 의견을 다시 제시하는 순환 논증의 오류에 해당한다.

## 02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글 쓰기

### 소단원 한눈에 보기

140~141쪽

- 1 (1) 독자 (2) 객관적 (3) 신뢰
- 2 (1) 앞으로의 과제 (2) 글의 목적
- 3 (1) ○ (2) ○ (3) ×
- 4 (1) 개요 (2) 설명 방법
- 5 (1) × (2) × (3) ○
- 6 (1) 정의 (2) 비교 (3) 인과 (4) 예시

### 스스로 확인하기

144~151쪽

- (1) ○ (2) 배경지식 (3) 우유

### 내용 확인 문제

144~151쪽

- 1 ①    2 ⑤    3 ⑤    4 ④

- 1 준서는 계획하기 단계에서 독자인 친구들이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른다는 점을 분석하였으며, 글 쓰고 고쳐 쓰기 단계에서는 독자들이 도파민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할 경우 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오답 풀이** ② 계획하기 단계에서 준서는 많은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로 하였다.

③ 준서는 아이스크림의 개념을 정의의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④ 준서는 사전, 책, 텔레비전, 누리집 등의 매체에서 수집한 자료 중 글에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고 활용 방안을 고려하여 글에 활용하였다. 이때 활용하는 자료는 내용이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독자의 수준에 맞게 단어 등을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준서는 계획하기 단계에서 독자를 친구들로 설정하였다.
- 2 준서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글이 주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내용을 다뤄야 하는 설명하는 글에 활용할 수 없겠다고 하였다.
- 3 설명하는 글에 쓸 자료를 선별할 때는 자료의 객관성, 정확성, 사실성, 체계성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자료의 예술성은 설명하는 글과 무관한 기준이다.
- 4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면 설명 대상의 특성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고,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 활동 응용 문제

152~155쪽

- 1 ③    2 ⑥    3 ④    4 ⑤    5 ㉠ 정의 ㉡ 구분
- 6 ①    7 대조, 방법

- 1 설명하는 글을 쓸 때는 글의 주제, 글의 목적, 독자, 글을 실을 매체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운다.
- 2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할 때는 설명 대상과 관련이 있는 자료인지,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인지, 독자의 배경지식과 관심을 고려한 자료인지, 자료의 출처가 분명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글쓴이의 감정이 생생하게 드러나는지의 여부는 설명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할 때의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 3 개요는 글을 쓸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고 전체적인 구조를 계획하여 구조화한 글의 뼈대를 말한다. 따라서 개요는 글의 유형에 적합한 구조에 따라 짜임새 있게 작성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개요에 무조건 많은 내용을 담는 것이 아니라 글의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에 걸맞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

② 개요를 작성할 때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를 따져 수집한 자료를 선별하여 활용해야 한다.

③ 개요를 작성할 때는 '처음-가운데-끝'(설명하는 글), 또는 '서론-본론-결론'(주장하는 글)으로 나누어 각 부분의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

⑤ 개요는 글로 쓸 내용을 수집한 후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작성하는 것이다.
- 4 구분은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드는 설명 방법은 예시이다.
- 5 ㉠은 배드민턴의 개념을 풀어서 설명한 것으로, 정의가 사용된 문장이다. ㉡은 배드민턴의 경기 방식을 성별과 인원 수를 기준으로 설명한 것으로, 구분이 사용된 문장이다.
- 6 설명하는 글은 객관적인 내용을 다뤄야 하므로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났는지의 여부는 점점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 7 마라톤 선수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마라톤 선수와 일반인의 심박수의 차이점을 밝혀야 한다. 따라서 대조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문해력 키우기

157쪽

- 1 유용하다    2 보충하다    3 생성하다    4 섭취하다    5 ×
- 6 ○    7 ×    8 ○    9 ㉠    10 ㉡    11 ㉢    12 ㉣

### 확인 문제

159쪽

- 1 매체    2 주제    3 개요    4 이해    5 ×    6 ○    7 ○
- 8 ㉠    9 ㉡    10 ㉢

## 발전 활동

### 활동 응용 문제

160~161쪽

1 ②      2 인과

- 1 기사문은 사실을 보고 들은 그대로 적은 글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기사문에 허구적 상상을 첨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2 학교가 도서관 공간을 재정비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밝혀 설명하는 인과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소단원 평가

162~165쪽

- 01 ⑤    02 ②    03 ③    04 [D]. 아이스크림에 대한 주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05 ①    06 대조, 대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07 ⑤    08 ③
- 09 한편 중국에는, 추측하고 있다    10 ⑤    11 ②    12 ④
- 13 ①    14 ③    15 a 정의 b 예시

- 01 글을 쓰기 위해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글의 주제, 목적, 독자, 글을 실을 매체 등을 정한다. 글에서 사용할 설명 방법은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에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02 자료를 수집할 때는 자료의 출처, 객관성, 정확성, 그리고 글의 주제와의 관련성을 점검해야 한다. 글쓴이의 개인적인 경험은 주관적인 내용이므로 설명하는 글의 자료를 수집할 때 점검해야 하는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
- 03 당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의 과다 섭취와 그로 인한 질환을 다루는 [F]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부드러운 이유는 [E]를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과학적인 이유를 설명할 때는 도파민에 대해 설명한 [C]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04 [D]는 아이스크림에 대한 주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 설명하는 글에 활용할 수 없다.
- 05 (다)와 같은 개요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작성한다. 개요를 작성할 때는 수집한 자료를 활용 방식에 맞게 선별하고, 선별한 자료의 내용을 글의 흐름에 맞게 배열하여 구조화해야 한다. 선별한 자료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 쓰는 것은 글 쓰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 06 얼음과 아이스크림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대조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07 설명하는 글의 ‘끝’ 부분에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독자에 대한 당부 등을 덧붙이며 글을 마무리한다.

오답 풀이 ①, ② ‘끝’ 부분에서 앞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설명 대상과 관련된 상황을 환기하는 내용은 ‘처음’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④ 설명하는 글이므로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 글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제한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 08 (다)에서 ‘재료를 계속 저으면서 얼리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아이스크림이 부드러운 이유를 인과의 방법으로 밝히고 있다.

- 09 아이스크림의 기원은 ‘아이스크림의 특징’이라는 글의 주제와 거리가 먼 내용으로, 글의 통일성을 해친다. 따라서 ‘한편 중국에는 ~ 추측하고 있다.’라는 문장은 삭제해야 한다.

- 10 ㉠은 구분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아이스크림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지만, 아이스크림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이 뒤섞여 있다. 반면 <보기>에서는 형태와 맛이라는 기준을 세워 아이스크림의 종류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 11 설명하는 글을 쓸 때는 설명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는 데 적합한 설명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각 문단별로 서로 다른 설명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2 ‘하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아이스크림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왜냐하면 아이스크림에는 적지 않은 양의 당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에서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인과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당을 과하게 섭취할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여러 질환을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② 청소년기에 당을 과다 섭취하면 발생하는 문제를 설명하는 부분에 대조는 사용되지 않았다.

③ 이 글에 당의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아이스크림에 들어 있는 당의 양을 설명하는 부분에 분류는 사용되지 않았다.

- 13 이 글은 설명하는 글이므로, ㉠의 ‘~듯하다’와 같이 추측하는 표현은 명확한 표현으로 바꿔 써야 한다. 또한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내용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출처를 제시해야 한다.

- 14 기사문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 균형 잡힌 시각으로 써야 한다. 따라서 기사문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취재를 통해 생성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하며, 전달하려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작성해야 한다.

- 15 이 글에서는 정의의 방법을 사용하여 구연동화가 무엇인지 그 뜻을 설명하고 있으며,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여 동아리 학생들이 연기한 전래 동화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대단원 평가

170~173쪽

- 01 ②    02 동물원에 관한 흥미로운 정보를 전달한다.    03 ⑤  
 04 ②    05 ④    06 ③    07 ③    08 따라서 동물원의  
 동물은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    09 ⑤    10 ④  
 11 아이스크림의 개념과 종류    12 ①    13 ④    14 ②  
 15 ⑤

01 (라)에서 창경원을 본래의 창경궁으로 복원하자는 여론에 따라 창경궁 복원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동물원은 과천으로 이전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02 (가)의 ‘동물원에 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알아보자.’를 통해 이 글의 목적이 동물원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03 ㉠에서 인과의 방법으로 창경원이 인기를 끈 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생활 공간에서 보기 힘든 동물은 분류가 아닌 예시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에서는 어떤 대상의 개념이나 뜻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정의의 방법으로 동물원의 뜻을 밝히고 있다.

② ㉡에서는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묶거나 나누어서 설명하는 구分的 방법으로 동물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설명하고 있다.

③, ④ ㉢에서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을 밝혀 설명하는 비교의 방법으로 주 키퍼와 아쿠아리스트의 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고, ㉣에서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차이점을 밝혀 설명하는 대조의 방법으로 주 키퍼와 아쿠아리스트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04 설명하는 글에 쓰인 설명 방법이 적절한지 평가하려면, 설명 방법이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에 적합한 것인지 판단해 보고, 해당 설명 방법이 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독자의 이해를 돕는지, 다른 설명 방법을 사용했을 때보다 더 효과적인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글쓴이의 독창성을 드러내는 것은 설명하는 글보다 수필과 같은 글에 더 적합하다.

05 이 글에서는 ‘동물원은 동물권을 왜곡하고, 동물을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도구로 만든다.’라는 ‘이유 2’를 뒷받침하기 위해 동물원에서 공연을 하던 우탄이 고통을 겪었다는 내용을 ‘근거 2’로 제시하고 있다.

06 (다)에는 개별적인 사실인 동물원은 동물의 본성을 고려하지 않아 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 동물원이 동물을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도구로 만든다는 점으로부터 일반적인 사실인 동물원은 동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인간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것을 이끌어 내는 귀납 논증이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① 연역 논증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귀납 논증은 참인 사실이나 현상을 바탕으로 참일 가능성이 높은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 방법이다.

② 연역 논증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④ 흑백 논리의 오류에 대한 설명이다.

⑤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개별적인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 낸 것이므로 연역 논증에 해당한다.

07 (라)는 논증 요소 중 예상 반론에 해당한다. 예상 반론은 멸종 위기종을 보전하고,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물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라)의 뒤에는 이 내용에 대한 반박이 이어져야 하므로 ‘동물원은 멸종 위기종을 보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적절하다.

08 (마)에는 연역 논증이 사용되었다. ‘인간을 비롯해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모든 생명체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일반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동물원의 동물 역시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생명체이다.’라는 전제를 추가하여, ‘동물원의 동물은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라는 특수한 사실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09 (가)는 계획하기 단계로, 글의 주제(아이스크림의 특징), 목적(아이스크림에 대한 정보 전달), 독자(친구들), 글을 실을 매체(블로그) 등을 정한다.

10 [D]는 아이스크림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담고 있는 자료로, 객관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 설명하는 글에 사용할 수 없는 자료이다.

11 [A]는 아이스크림의 개념을, [B]는 아이스크림의 종류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12 이 글은 설명하는 글로, 아이스크림의 개념 및 종류, 특징 등 아이스크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13 (가)에서 정의를 활용하여 아이스크림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을 뿐, 아이스크림의 주성분인 설탕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14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는 내용이 정확하고 객관적인지 확인하고, 쓰기 윤리에 따라 출처를 밝혀야 한다. 설명하는 글에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15 ㉠에서는 일상에서 당류 섭취량을 줄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은 설명하는 글이므로 ㉠에 글쓴이가 일상 속 당류 줄이기를 실천했던 사례와 같이 개인적인 경험을 열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에서는 구분을 활용해 아이스크림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으나 기준이 없어 뒤죽박죽 섞인 느낌을 준다. 따라서 적절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아이스크림의 종류를 구분해야 한다.

② ㉡에서는 아이스크림의 기원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③ ㉢에서는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를 도파민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는 도파민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독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파민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야 한다.

④ ㉣에서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하고 제시한 정보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한 글음 더 서술형 문제**

174~175쪽

**01** 인과의 방법을 활용하여 ㉠은 창경원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끈 이유를, ㉡은 동물원이 과천으로 이전한 이유를 설명한다.

- 02** (1) 동물원은 폐지되어야 한다.
- (2) 동물원의 환경은 동물의 본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는 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 (3) 코끼리와 호랑이의 사례

**03** '동물원의 동물은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라는 결론을 연역의 방법으로 도출하였다.

**04** ㉠ 아이스크림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정의의 방법을 활용하였기에 적절하다.

㉡ 아이스크림과 얼음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비교, 대조의 방법을 활용하였기에 적절하다.

**05** 배경지식이 부족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파민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06** 정보의 출처가 없고,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썼기 때문에 고쳐 써야 한다.

**01** ㉠은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인과를 사용하여 창경원이 인기를 끈 이유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예시를 사용하여 생활 공간에서 보기 힘든 동물이 무엇인지 밝혔다. ㉡은 인과를 사용하여 창경궁 복원 사업이 진행되어 동물원이 과천으로 이전하게 되었음을 설명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인과의 방법이 공통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썼다.	<input type="checkbox"/>
㉠과 ㉡이 설명하는 대상을 각각 알맞게 썼다.	<input type="checkbox"/>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input type="checkbox"/>

**02** (다)에서는 '동물원은 폐지되어야 한다.'와 같이 글쓴이의 주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나)에서는 '동물원의 환경은 동물의 본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는 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를 이유로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동물원의 좁은 공간이 코끼리의 활동량을 부족하게 만들어 관절염과 같은 질병을 유발한 사례와 전시실의 호랑이가 방문객에게 노출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무기력해지고 반복 행동을 한 사례를 들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글쓴이의 주장을 밝혀 썼다.	<input type="checkbox"/>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썼다.	<input type="checkbox"/>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input type="checkbox"/>

**03** (다)에서는 '인간을 비롯해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모든 생명체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전제 1과, '동물원의 동물 역시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생명체이다.'라는 전제 2를 통해

'동물원의 동물은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처럼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개별적인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을 연역 논증이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다)에서 도출한 결론을 찾아 썼다.	<input type="checkbox"/>
(다)에서 사용한 논증 방법을 밝혀 썼다.	<input type="checkbox"/>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input type="checkbox"/>

**04** ㉠은 아이스크림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대상의 개념이나 뜻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인 정의를 활용했으므로 적절하다. ㉡은 얼음과 아이스크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둘 이상의 대상을 건주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 설명하는 비교·대조를 활용하였으므로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의 적절성을 알맞게 평가하여 썼다.	<input type="checkbox"/>
㉡의 적절성을 알맞게 평가하여 썼다.	<input type="checkbox"/>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input type="checkbox"/>

**05** <보기>는 ㉢과 달리 도파민의 뜻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따라서 <보기>는 도파민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한 독자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파민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보기>에서 어떤 점을 고쳐 썼는지 썼다.	<input type="checkbox"/>
<보기>와 같이 고쳐 쓴 이유를 썼다.	<input type="checkbox"/>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input type="checkbox"/>

**06** ㉢은 정보의 출처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듯하다'와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은 '아이스크림 100그램에는 28그램 정도의 당이 들어 있다'는 정보의 출처를 밝히고 '~듯하다'와 같은 추측하는 말을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정보의 출처가 없다는 점을 썼다.	<input type="checkbox"/>
명확하지 않은 표현이 사용되었음을 썼다.	<input type="checkbox"/>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input type="checkbox"/>

- 01 ⑤    02 ④, ⑤    03 <보기>의 설명 방법은 정의로, 이 글의 '동물원은 세계 여러 곳의 다양한 동물을 한곳에 모아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이다.'에도 나타난다.    04 ⑤    05 ②  
 06 ④    07 ④    08 ㉠, 인과    09 ①    10 ④    11 ④  
 12 ②

01 (나)에는 주 키퍼는 육상 동물을, 아쿠아리스트는 해양 동물을 주로 관리한다는 점이 설명되어 있을 뿐, 각각을 관리하는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창경궁의 복원 사업이 진행된 계기는 (라)에서 찾을 수 있다.  
 ② 시대에 따른 동물원의 형태 변화는 (마)에서 찾을 수 있다.  
 ③ 큐레이터와 식생 관리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에서 찾을 수 있다.  
 ④ 오늘날 동물원의 동물 복지에 대한 내용은 (마)에서 찾을 수 있다.

02 ①은 동물원에서 일하는 사람을 '동물을 직접 대하는가'를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한 문장으로, 구분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④는 악기를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고, ⑤는 운동 경기를 경기 인원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모두 구분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 오답 풀이** ① 시, 소설, 수필, 희곡이라는 각각의 갈래를 문학이라는 기준에 따라 묶어서 설명한 것으로, 분류가 쓰였다.  
 ② 생수병을 구성 요소별로 나누어 설명한 것으로, 분석이 쓰였다.  
 ③ 귀를 구성 요소별로 나누어 설명한 것으로, 분석이 쓰였다.

03 <보기>에서는 쥐불놀이의 의미를 밝혀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의 '동물원은 세계 여러 곳의 다양한 동물을 한곳에 모아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이다.'에서도 동물원의 개념을 밝혀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의의 설명 방법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보기>에 사용된 설명 방법이 정의임을 밝혀 썼다.	<input type="checkbox"/>
이 글에서 정의가 쓰인 문장을 찾아 썼다.	<input type="checkbox"/>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input type="checkbox"/>

04 이 글의 글쓴이는 동물원은 동물의 본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드러나 있으며, 동물은 자연에 더 어울린다는 ⑤의 말이 글쓴이가 할 말로 가장 적절하다.

05 (나)~(라)에서는 동물원은 동물의 본성을 고려하지 않아 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 동물을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도

구로 만든다는 점과 같은 개별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동물원은 동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인간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 내는 귀납 논증이 쓰였다. ㄴ과 ㄹ 또한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실로부터 일반적, 보편적 원리를 이끌어 내는 귀납 논증이 쓰였다.

**오답 풀이** ㄱ. 부분을 전체로 착각하여 저지르는 오류로, 소수의 사례를 근거로 하여 전체의 속성을 일반화할 때 발생하는 오류인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나타난다.

ㄷ, ㄴ.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에서 개별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연역 논증이 사용되었다.

06 설명하는 글을 쓸 때는 설명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는 데 적합한 설명 방법, 독자의 이해를 돕는 데 효과적인 설명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더 많은 설명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07 아이스크림의 가격과 설탕 생산량의 상관관계는 (가), (나)의 내용과 무관하다.

- 오답 풀이** ① 아이스크림의 개념이나 특징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② 아이스크림의 특징 중 부드러운 질감에 대해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③, ⑤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08 <보기>는 지방과 당을 섭취할 때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원인과 결과를 밝혀 설명하는 인과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09 꽃이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대상을,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0 이 글에서는 아이스크림으로 인한 당 과다 섭취를 언급하고 있을 뿐, 아이스크림에 담긴 영양소나 그 효능에 대해 분석하지는 않았다.

11 (나)에서는 비교와 대조의 방법으로 아이스크림과 얼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이처럼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한 주제로는 강아지와 고양이 습성이 적절하다.

12 이 글은 아이스크림의 특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므로 개인적 경험을 소개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정보를 담아야 한다.

# 3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

## 01 우리말과 우리글

**소단원 한눈에 보기** 184~185쪽

1 (1) ○ (2) ×  
 2 (1) 위치 (2) 파찰음 (3) 된소리  
 3 입술, 혀  
 4 (1) 높이 (2) 원순 (3) 후설  
 5 (1) ㅅ (2) ㅁ (3) ㅇ (4) ㄴ (5) ㄱ  
 6 (1) × (2) ○ (3) ×

**활동 응용 문제** 190~205쪽

1 ④    2 ⑤    3 ②    4 (1) ㄷ, ㅍ (2) ㅅ, ㅈ (3) ㅅ, ㅎ  
 5 ③    6 ①    7 ③    8 ㅍ, ㅋ, ㅊ, ㅋ    9 (1) ㅍ, ㅂ, ㅌ  
 (2) ㄴ, ㄱ    10 ⑤    11 혀의 높이    12 ①    13 ⑤  
 14 자주정신    15 ②    16 ①    17 ⑤    18 하늘, 사람  
 19 ⑤    20 모아쓰기, 빠르게

-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은 형태소, ②는 품사, ③은 말소리, ⑤는 단어의 개념이다.
-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서 나는 소리를 잇몸소리라 하며 ‘ㄴ, ㄷ, ㅌ, ㄹ, ㅅ, ㅆ, ㅌ’이 이에 해당한다. ‘ㅈ’은 혓바닥과 셸입천장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셸입천장소리이다.
-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는 콧소리로, 이에 해당하는 것은 ‘ㄴ, ㅁ, ㅇ’이다.
- 제시된 자음 중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인 파열음에 해당하는 것은 ‘ㄷ, ㅍ’이고,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열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인 파찰음에 해당하는 것은 ‘ㅅ, ㅈ’이며, 입안이나 목청의 통로를 좁혀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인 마찰음에 해당하는 것은 ‘ㅅ, ㅎ’이다.
-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인 파열음에는 ‘ㄱ, ㅋ, ㄷ, ㅌ, ㅂ, ㅃ, ㅋ, ㅌ, ㅍ’이 있다. 제시된 문장에 쓰인 파열음은 ‘ㅂ, ㄱ, ㄷ’으로, 총 3개이다.
- 성대를 긴장시켰다가 풀면서 적은 양의 공기를 내보내는 소리는 된소리로, ‘ㄱ, ㅋ, ㅊ, ㅌ, ㅍ’이 있다.

**참고 자료**

**자음의 분류**  
 자음은 목청과 목 안을 통과해 온 공기의 흐름이 입안 어느 위치에서 방해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소리가 난다. 따라서 한 자음이 어떤 소릿값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공기의 흐름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방법으로 방해를 받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이 ‘위치’와 ‘방법’을 ‘소리 나는 위치’와 ‘소리 나는 방법’이라고 한 것이다.

- ‘ㄱ, ㅋ, ㄴ, ㄷ, ㅌ’는 소리를 낼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단모음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② 소리를 낼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은 이중 모음이다.  
 ④ 자음에 대한 설명이다.  
 ⑤ 반모음에 대한 설명이다.
- 이중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이다. 제시된 문장에 사용된 이중 모음은 ‘야구’의 ‘ㅑ’, ‘경기’의 ‘ㅕ’, ‘표’의 ‘ㅛ’, ‘예매’의 ‘ㅝ’이다.
- 모음은 발음할 때의 입술 모양에 따라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시된 모음 중 ‘ㅏ, ㅗ, ㅜ’는 평순 모음이고, ‘ㅓ, ㅜ’는 원순 모음이다.
-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높은 모음은 고모음이며, ‘ㅣ, ㅑ, ㅓ, ㅕ’가 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ㅏ’는 혀의 위치를 가장 낮추어서 발음하는 저모음에 해당한다.  
 ②, ③, ④ ‘ㅝ, ㅓ, ㅜ’는 혀의 높이를 중간으로 하여 발음하는 중모음이다.
-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눌 수 있고, 입술 모양에 따라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혀의 높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 혀의 최고점이 입안의 뒤쪽에 있는 모음은 후설 모음이고, 혀의 위치를 가장 낮추어 소리 내는 모음은 저모음이며,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소리 내는 모음은 평순 모음이다. 후설 모음이자 저모음이며 평순 모음인 ‘ㅏ’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음이다.  
**오답 풀이** ② ‘ㅗ’는 전설 모음이자, 저모음, 평순 모음이다.  
 ③ ‘ㅓ’는 후설 모음이자, 중모음, 평순 모음이다.  
 ④ ‘ㅓ’는 후설 모음이면서 중모음, 원순 모음이다.  
 ⑤ ‘ㅓ’는 후설 모음이고, 고모음, 평순 모음에 속한다.
- 음운의 발음이나 표기를 정확히 해야 하는 이유는 발음이나 표기가 정확하지 않으면 말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말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내용을 더 생생하고 긴장감 있게 드러내는 것과 음운의 발음이나 표기의 정확성은 관련이 없다.

14 '자주정신'은 남의 간섭이나 보호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일을 처리하려는 마음을 의미한다. 『훈민정음』의 「어제 서문」 중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 말과 달라 한자로 쓴 글과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에는 우리말과 중국 말은 말소리와 문장 구조가 달라서 중국의 글자인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드러나므로, 이를 통해 자주정신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은 1443년에 세종이 창제한 우리나라 글자 '한글'을 이르는 말로,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및 사용법 등을 풀이한 책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 책은 본문에 해당하며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을 밝힌 「어제 서문」과 훈민정음의 음가와 운용법을 설명한 「어제 예의」, 이를 풀이한 「해례」와 훈민정음의 창제 이유, 창제자, 우수성 등을 밝힌 정인지의 「서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15 'ㄴ'은 혀소리,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자음자이다.

16 'ㄱ'은 'ㄱ'에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자음자이다. 하지만 'ㄲ'은 자음자 둘 이상을 나란히 쓰는 방법인 병서로 만들어진 자음자이다.

17 'ㄹ, ㄷ, ㅅ'은 자음자의 기본자인 'ㄴ, ㅅ, ㅇ'에 획을 더하여 만들어진 이체자로,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졌지만 소리가 세지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기본자를 합해 만들었다는 것은 합성의 원리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본자를 합해 만든 글자는 'ㅊ, ㅌ, ㅍ, ㅍ'이다.  
 ②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기본자는 'ㄱ, ㄴ, ㄹ, ㅅ, ㅇ'과 'ㅁ, ㅂ, ㅅ, ㅈ, ㅊ, ㅋ'이다.  
 ③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음은 'ㄷ, ㅅ'이다.  
 ④ 'ㄹ, ㄷ, ㅅ'은 각각 'ㄴ, ㅅ, ㅇ'에 획을 더해 만든 이체자이다.

18 모음자의 기본자 'ㅏ, ㅑ, ㅣ'는 각각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다.

19 재출자는 기본자를 두 번 결합하여 거듭 생겨난 글자를 말한다. 'ㅑ'와 'ㅓ, ㅣ'를 합하여 만든 글자인 'ㅑ, ㅓ, ㅕ, ㅗ'에 'ㅑ'를 다시 합하여 만든 'ㅑ, ㅓ, ㅕ, ㅗ'를 재출자라 한다.

- 오답 풀이** ① 훈민정음의 자음자와 모음자의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는데, 자음자의 기본자 'ㄱ, ㄴ, ㄹ, ㅅ, ㅇ'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모음자의 기본자 'ㅏ, ㅑ, ㅣ'는 하늘, 땅, 사람을 각각 본떠 만들었다  
 ② 자음자의 기본자는 'ㄱ, ㄴ, ㄹ, ㅅ, ㅇ'으로 다섯 개이고, 모음자의 기본자는 'ㅏ, ㅑ, ㅣ'로 세 개이다.  
 ③ 기본자 'ㄱ'에 획을 더하여 'ㄲ'을, 'ㄴ'에 획을 더해서 'ㄷ, ㅌ'을 만드는 것처럼, 가획의 원리는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방법을 말한다.  
 ④ 초출자는 기본자를 한 번만 결합하여 첫 번째로 생겨난 글자로 'ㅑ'와 'ㅓ'를 합하여 만든 'ㅑ, ㅓ'와 'ㅑ'와 'ㅣ'를 합하여 만든 'ㅑ, ㅗ'가 있다.

20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음절 단위로 모아서 쓰는데, 이를 '모아쓰기'라고 한다. 그리고 한글 자판은 자음자와 모음자의 수가 비슷하고, 자판 좌우에 고르게 배치되어 문자를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

**문해력 키우기**

207쪽

- 1 ○ 2 × 3 ○ 4 × 5 신속하게 6 입력해야  
 7 간과해서는 8 방지하기 9 기준 10 조화 11 긴장  
 12 특색

**확인 문제**

209쪽

- 1 × 2 ○ 3 ○ 4 단모음 5 평순, 원순 6 고모음  
 7 최고점 8 ⊖ 9 ⊕ 10 ⊖

**발전 활동 「소리의 길이」**

**활동 응용 문제**

210~211쪽

- 1 동형이의어 2 ㉠ 3 ㉡

1 형태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를 동형이의어라고 한다.

**참고 자료**

**동형이의어**

형태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를 말한다. 소리가 같으나 뜻이 다른 경우, 철자가 같으나 뜻이 다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2 문맥을 고려할 때 '사과'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장음으로 발음해야 한다.

3 ㉠의 '밤'은 '밤나무의 열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밤]과 같이 장음으로 발음한다.

- 오답 풀이** ①, ②, ③의 '밤'은 모두 '해가 저서 어두워진 때부터 다음 날 해가 떠서 밝아지기 전까지의 동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밤]과 같이 단음으로 발음한다.

④ '군밤'의 '밤'은 '밤나무의 열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지만, 이 글에 따르면 같은 말이라도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단음으로 발음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군밤'의 '밤'은 단음 [밤]으로 발음한다.

## 소단원 평가

212-215쪽

- 01 ④    02 '달'과 '돌'은 'ㅌ'와 'ㄱ'의 소리 차이 때문에 말의 뜻이 달라진다.    03 ②    04 ④    05 ④    06 ③    07 ④  
 08 ③    09 ①    10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만들.    11 ②  
 12 ③    13 ④    14 ②    15 문자를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  
 16 ⑤    17 ⑤    18 ㉠, ㉡, ㉢, ㉣는 단음이고, ㉤는 장음이다.

01 '물'과 '뭍'은 자음 'ㅁ'과 'ㅂ'의 소리 차이 즉, 자음 때문에 말의 뜻이 달라진다.

- 오답 풀이** ① 글에서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하였다.  
 ②, ③ 음운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산'의 음운을 분석하면 'ㅅ, ㅌ, ㄴ'이 된다.  
 ⑤ 자음은 발음 기관에 의해 공기의 흐름이 방해 받으며 나오는 소리이다.

02 '달'과 '돌'은 모음 'ㅏ'와 'ㅑ'의 소리 차이 때문에 말의 뜻이 달라진다.

평가 기준	확인
'ㅏ'와 'ㅑ'의 차이, 모음의 차이 때문이라는 내용을 썼다.	<input type="checkbox"/>
한 문장으로 썼다.	<input type="checkbox"/>

03 자음 'ㄹ'은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혀의 양옆으로 흘려 보내면서 내는 흐름소리이다.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는 콧소리로, 'ㄴ, ㄹ, ㅇ'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콧소리는 코를 막고 발음했을 때 소리가 달라진다.

- 오답 풀이** ① 'ㅎ'은 목청에서 나는 목청소리에 해당한다.  
 ③ 자음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순으로 소리의 세기가 커진다.  
 ④ 자음은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콧소리, 흐름소리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다시 나눌 수 있다.  
 ⑤ 자음은 발음 기관에 의해 공기의 흐름이 방해 받으며 나오는 소리인데, 이때 공기의 흐름이 어느 위치에서 방해 받는지에 따라 소리 나는 위치가 결정된다. 자음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로 나뉜다.

04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는 파열음으로, 'ㄱ, ㅋ, ㆁ, ㆁ, ㅂ, ㅃ, ㅋ, ㆁ, ㅍ'이 이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열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는 파찰음으로, 'ㅅ, ㅆ, ㅈ'이 이에 해당한다. 입안이나 목청의 통로를 좁혀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는 마찰음으로, 'ㅅ, ㅆ, ㅎ'이 이에 해당한다.

05 <보기>의 윗줄에 제시된 모음은 단모음이고, 아랫줄에 제시된 모음은 이중 모음이다. 소리를 낼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으면 단모음, 변하면 이중 모음이다.

- 오답 풀이** ①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모음을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분류한다.

- ② 발음할 때 소리의 길이는 동형어의 뜻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③ 입이 벌어지는 정도에 따라 혀의 높낮이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모음은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뉜다.  
 ⑤ 입술 모양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소리 내는 모음은 평순 모음,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소리 내는 모음은 원순 모음이다.

06 'ㅏ'는 혀의 최고점이 입안의 뒤쪽에 있는 후설 모음이자,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소리 내는 평순 모음, 혀의 위치를 가장 낮추어서 발음하는 저모음이다. 따라서 <보기>의 표에서 'ㅏ'가 들어갈 자리는 ㉤이다.

- 오답 풀이** ㉠에는 'ㅏ', ㉡에는 'ㅑ', ㉢에는 'ㅓ', ㉣에는 'ㅑ'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7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에는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려는 마음인 '창조 정신'이 드러난다.

- 오답 풀이** ①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 말과 달라 한자로 쓴 글과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에는 '주정신'이 드러난다.  
 ②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에는 '애민 정신'이 드러난다.  
 ③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에는 '애민 정신'이 드러난다.  
 ⑤ '사람마다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에는 '실용 정신'이 드러난다.

08 (다)에서 'ㅇ(엷이음), ㄹ, ㄹ(반치음)'은 각각 자음자의 기본자인 'ㅇ, ㄴ, ㅅ'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으나, 소리가 세지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글자를 이체자라고 하였다. 자음자의 기본자인 'ㄱ'에 획을 더한 'ㅋ', 'ㄴ'에 획을 더한 'ㄷ, ㅌ', 'ㅁ'에 획을 더한 'ㅂ, ㅍ', 'ㅅ'에 획을 더한 'ㅆ, ㅌ', 'ㅇ'에 획을 더한 'ㅎ(여린히음), ㅎ'이 획을 하나씩 더할 때마다 소리가 더 세지는 특성이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훈민정음은 자음자 열일곱 자와 모음자 열한 자로 총 스물여덟 자'라고 하였다.  
 ② (가)에서 자음자의 기본 다섯 글자는 상형의 원리에 따라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 본떠 만들었다고 하였고, (나)에서 모음자도 상형의 원리에 따라 천지인(天地人), 즉 하늘과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다고 하였다.  
 ④ (다)에서 자음자는 기본자에 획을 하나씩 더해서 만들었고, 이를 가획의 원리라고 하였다.  
 ⑤ (다)에서 가획된 자음자와 그 기본자는 소리 나는 위치가 같고, 그 모양도 비슷하다고 하였다.

09 (가)에 따르면, 자음자의 기본자 다섯 자는 상형의 원리에 따라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다. 'ㄱ' 어금닛소리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든 것으로, 어금니에 붙는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② 'ㄴ' 혀소리는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③ 'ㅁ' 입술소리는 입의 모양을, ④ 'ㅅ' 잇소리는 이의 모양을, ⑤ 'ㅇ' 목구멍소리는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 02 두근두근 발표

### 소단원 한눈에 보기

218~219쪽

- 1 (1) ○ (2) ○
- 2 (1) 매체 (2) 재구성 (3) 전개부
- 3 (1) 설명 (2) 개선 (3) 도입부
- 4 (1) 반응 (2) 흐름 (3) 강조
- 5 (1) 공식적 (2) 내용
- 6 (1) ○ (2) ○ (3) ×

### 활동 응용 문제

222~237쪽

- 1 ④    2 ④    3 ④    4 ②    5 도입부    6 ⑤    7 ⑤
- 8 ③    9 착용 로봇을 만드는 공학자    10 ③    11 비언어적, 준언어적    12 ⑤    13 ⑤    14 ⑤    15 ⑤    16 ④
- 17 ①    18 ②    19 ①    20 ①    21 청중    22 ⑤

- 1 발표를 계획할 때는 발표 주제, 발표 목적, 예상 청중, 발표 내용을 정해야 한다.
- 2 (라)는 로봇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된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스포츠 기업에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일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3 발표에 활용할 자료를 선별할 때는 발표의 주제와 목적에 맞는지,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내용인지, 발표에 활용할 만큼 중요하든지, 청중이 이해하기 쉬운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지의 여부는 발표에 활용할 자료를 선별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아니다.
- 4 길이가 길고 정보가 많은 영상이나 책의 경우 그대로 제시하면 청중의 집중도나 흥미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핵심적인 정보를 간추려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비슷한 내용의 자료, 중복되는 내용의 자료가 있을 경우 두 자료를 묶어서 제시해야 한다.
  - ③ 수치가 많이 활용되었거나 시각적으로 보여 주어야 하는 자료는 그래프로 재구성한다.
  - ④ 분량이 많은 자료는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정보를 선별하여 자료를 재구성해야 한다.
  - ⑤ 청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쓰인 경우 쉬운 단어로 수정해야 한다.
- 5 도입부에서는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발표 주제와 목적, 절차, 의의 등을 안내한다.
- 6 일반 로봇과는 다른 착용 로봇의 특징을 설명한다고 하였으므로,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차이점을 밝혀 설명하는 방법인 대조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정의는 어떤 대상의 개념이나 뜻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이다.
- ②, ④ 분류·구분은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묶거나 나누어서 설명하는 방법이다.
- ③ 예시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 7 윤이는 우리 반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높은 지위의 청중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말하기 불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 8 발표를 할 때는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발표해야 한다. 따라서 말하기 불안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청중이 없다고 간주하며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참고 자료

####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

말하기 불안은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기 전 또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 증상을 의미한다. 말하기 불안은 '유창한 말하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철저한 준비와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얻음으로써 완화할 수 있다.

- 9 발표의 도입부 부분 중 '저희 모듬에서는 착용 로봇을 만드는 공학자를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를 통해 발표 주제가 착용 로봇을 만드는 공학자임을 알 수 있다.
- 10 발표 전략을 사용하는 목적은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기 위함이다. 발표 전략과 말하기 불안 증상의 완화는 관련이 없다.
- 11 표정, 시선, 행동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나 목소리의 크기, 속도, 말투, 어조와 같은 준언어적 요소들도 발표의 전략이 될 수 있다.
- 12 발표 도중에는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발표의 내용이나 진행 속도 등을 조정해야 한다. 목소리의 크기나 어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은 발표이다.
- 13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서 발표문을 쳐다보는 시간이 길었'다고 하였으므로, 발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시선 처리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실수할까 봐 걱정되었다면,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치는 상상을 하는 것이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
  - ② 청중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면,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
  - ③ 발표의 순서를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다면, 발표를 시작할 때 순서를 미리 설명하는 것이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
  - ④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았다면, 정확한 발음을 익히고 표기를 점검하는 것이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
- 14 발표 주제와 관련해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보았는지 물어보는 것은 '듣기 전'의 점검 기준에 해당한다.
- 15 설문 조사를 통해 청중의 흥미, 배경지식, 궁금해하는 점 등을 파악해 두면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다.

16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면 자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길이가 길고 담고 있는 정보가 많다면 필요한 내용만을 선별해야 한다.

17 설명하는 발표의 도입부에서는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발표 주제와 목적, 절차, 의의 등을 안내한다. 기후 위기의 원인을 제시하는 것은 도입부가 아닌 전개부의 내용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도입부에는 발표 주제와 목적, 절차, 의의 등이 들어가야 하므로, 도입부에서 기후 위기라는 발표 주제와 발표 순서를 안내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④ 설명하는 발표의 전개부에서는 적절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발표 대상의 개념과 종류 등을 설명한다. 따라서 전개부에서 기후 위기의 개념과 심각성을 설명하고, 기후 위기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정리부에서는 발표 내용을 요약, 강조하고 청중에게 당부의 말을 전달한다. 따라서 정리부에서 발표 내용을 요약하고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다.

18 기후 위기의 개념을 설명할 때 정의의 설명 방법을, '물 부족, 생태계 붕괴, 해양 산성화 등'에서 예시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19 발표를 하며 말의 속도를 조정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등 어조를 활용하면 발표에서 중요하게 전달하려는 내용을 강조할 수 있다.

20 자신이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치는 상상을 하는 것은 말하기 불안을 점검하는 기준이 아니라, 완화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21 자신의 발표 과정을 되돌아볼 때는 청중과 시선을 맞추며 발표했는지, 청중이 발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안내했는지,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발표의 진행 속도와 내용을 적절히 조정했는지, 적절한 성량과 어조, 빠르기로 발표를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22 발표 중에 궁금한 내용을 바로 발표자에게 질문한다면 발표의 흐름을 깰 수 있고, 다른 청중들이 발표를 듣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발표를 들으며 더 알고 싶은 내용,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메모하고 질의응답 시간에 발표자에게 질문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② 발표를 들 때는 바른 자세로 발표자를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짓는 등 발표자에게 호응해 주면서 경청해야 한다.

③, ④ 듣는 목적을 고려하며 발표를 들었을 때 더 효과적으로 발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며 들어야 한다.

**문해력** 기후기

239쪽

- 1 선별하다 2 점검 3 보조 4 조정하다 5 ○ 6 ○  
7 × 8 × 9 ⊖ 10 ⊕ 11 ⊖ 12 ⊕

**확인** 문제

241쪽

- 1 ○ 2 × 3 × 4 ○ 5 ⊖ 6 ⊖ 7 ⊕  
8 성찰 9 호응 10 완화

**발전** 활동

**활동** 응용 문제

242-243쪽

- 1 ③ 2 ④

- (가)에서 누나는 야구 용어를 모르는 동생을 고려하지 않고, 야구 용어를 사용하여 말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나)에서 수지는 진우의 제안에 대한 자신의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진우와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지는 거절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하며, 이때 진우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소단원** 평가

244-247쪽

- 01 ③ 02 ③ 03 ⑤ 04 (가), (다) 05 ⑤ 06 ②  
07 ③ 08 ① 09 ② 10 ① 11 ⑤ 12 도입부에서 발표 순서를 미리 설명한다. 13 ③ 14 ④ 15 ⑤

- (가)의 '착용 로봇을 개발하는 공학자를 소개하면 어때?'라는 윤아의 말을 통해 착용 로봇을 개발하는 공학자를 소개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설문 조사에서 '착용 로봇 공학자'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는 세 번째 질문을 통해 '착용 로봇의 개념과 종류', '착용 로봇 공학자가 하는 일', '착용 로봇 공학자가 되는 법', '착용 로봇 공학자의 직업 전망'을 발표 내용으로 다룰 것임을 알 수 있다. '착용 로봇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가), (나)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착용 로봇을 개발하는 공학자를 소개하면 어때?'라는 윤아의 말을 통해 발표 주제가 착용 로봇 공학자임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우리 반 친구들이 발표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조사해 보자.'라는 민재의 말을 통해 발표의 예상 청중은 우리 반 친구들임을 알 수 있다.

03 (마)는 우리나라에서도 보조 기기용 착용 로봇을 맞춤형으로 개발하였고 일상적으로 쓰이게 만들고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마)의 중심 내용은 착용 로봇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서 산재 예방을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을 뿐, 착용 로봇의 개발 및 도입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가)는 착용 로봇의 장점과 활용 분야를 다루고 있다.  
 ② (나)는 착용 로봇의 개념과 기능을 다루고 있다.  
 ③ (다)는 착용 로봇의 활용 분야를 다루고 있다.  
 ④ (라)는 전 세계 착용 로봇 시장의 규모를 다루고 있다.

04 (가)와 (다)는 모두 착용 로봇의 활용 분야를 다루고 있다. 즉 (가)와 (다)는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두 자료를 같이 묶어서 다루어야 한다.

05 (라)에는 수치가 많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청중들이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의 내용을 도표나 그래프 등으로 정리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나)와 (마)에는 어려운 단어가 많이 쓰였지만, (라)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자료의 길이가 길고 정보가 많은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재구성 방법이다. (가)~(마)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라)에는 자료의 출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자료의 출처를 기재하는 것은 자료를 재구성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라)는 전 세계 착용 로봇 시장의 규모를 다루고 있으므로 발표 주제에 맞는 자료이다.

06 발표에서 조사한 자료의 내용을 모두 전달할 수는 없다. 발표는 수집한 자료를 선별하고 재구성한 후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도입부-전개부-정리부'의 단계로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07 발표할 때는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발표의 내용이나 진행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따라서 청중을 보지 않고 발표문만 쳐다보며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8 (가)는 착용 로봇의 개념과 종류를 중심 내용으로 전달하고 있다.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일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는다.

09 ㉠에서는 착용 로봇을 의료 기기용 착용 로봇과 보조 기기용 착용 로봇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므로, 설명 방법 중 구분이 사용된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정의는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식으로 대상의 개념이나 의미를 명확하게 풀이하여 설명하는 방법이다.  
 ③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다.  
 ④ 인과는 원인에 따른 결과나 결과에 대한 원인을 밝혀 설명하는 방법이다.  
 ⑤ 예시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10 '먼저(㉠)'와 '다음으로(㉡)', '지금까지'와 같은 표현은 청중이 발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발표 전략이다.

- 오답 풀이** ② 발표자는 '목소리를 높이며'에서 어조와 성량을 조절함으로써 발표에서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③ 발표자는 '착용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청중에게 발표 주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던지고 발표의 도입부와 전개부에서 착용 로봇과 관련한 사진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발표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거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④ 발표자는 청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인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쉽게 다시 설명함으로써 청중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⑤ 발표자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발표 내용 및 진행 속도를 조절하여 청중이 흥미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11 <보기>는 발표 내용을 요약·강조하고 청중에게 당부의 말을 전달하며 마무리하는 '정리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보기>는 마지막인 (마)의 뒤에 들어가야 한다.

12 <보기>는 발표를 시작할 때 발표의 차례를 알려 주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점검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에 발표를 할 때 도입부에서 발표 순서를 미리 설명한다면 아쉬웠던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

13 '발표 주제에 관해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있었는가?'는 '듣기 전'의 점검 기준에 해당하고,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생략하며 듣는 것은 발표를 들을 때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다.

14 (가)에서 누나와 동생이 대화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누나가 야구 용어를 모르는 동생을 고려하지 않고, 야구 용어를 사용하여 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나는 동생의 눈높이에 맞게 야구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동생은 자신이 알아듣지 못한 용어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면 대화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점검 기준**

- 말하는 이의 의도와 목적을 고려하며 들었는가?
- 듣는 이의 관심이나 배경지식을 고려하여 말했는가?
- 상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을 고려하며 의사소통했는가?

15 (나)에서 수지는 진우의 제안에 대한 자신의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수지의 입장에서 진우에게 거절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되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한다면, ⑤와 같이 고쳐 말할 수 있다.

## 대단원 평가

252-255쪽

- 01 ⑤    02 바, ㅏ, ㅓ, ㅗ, ㅛ, ㅜ, ㅠ    03 ⑤    04 ②    05 ⑤  
 06 ③    07 ㅓ(옛이음), ㄹ, ㅏ(반치음)    08 ⑤    09 ③  
 10 ②    11 착용 로봇을 개발하는 공학자를 소개한다.    12 ③  
 13 ③    14 ④    15 착용, 로봇입니다, 정의    16 ②    17 ⑤

- 01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 ‘햇밤’과 ‘햇봄’은 ‘ㅏ’와 ‘ㅓ’의 차이로 말의 뜻이 달라진다.
- 02 ‘반짝’은 ‘바, ㅏ, ㅓ, ㅗ, ㅛ, ㅜ’의 6개 음운으로 나눌 수 있다.
- 03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서 소리가 나는 자음은 잇몸소리이며, 성대를 긴장시키지 않고 공기를 약하게 내보내는 소리는 예사소리이다. 그리고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다시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는 파열음이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음은 ‘ㄷ’으로, ‘ㄷ’이 사용된 단어는 ‘도서관’이다.
- 04 ‘ㅏ’는 ‘ㅣ’로 시작해 ‘ㅓ’로 끝나는 이중 모음이다(㉠). 이처럼 소리 낼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을 이중 모음(ㄷ)이라고 한다.
- 오답 풀이** 나. ‘ㅓ’와 ‘ㅛ’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함을 허용하는 단모음이다.  
 ㄹ. 이중 모음을 발음할 때, ‘ㅣ’와 ‘ㅓ’처럼 아주 짧게 발음하는 모음을 반모음이라고 한다.
- 05 ‘ㄱ, ㅌ, ㅍ, ㅊ, ㅍ, ㅎ’은 같은 자음자를 나란히 쓰는 방법으로 만들었다.
- 오답 풀이** ① 훈민정음의 자음자 중 기본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다섯 자이다.  
 ② 두 글자를 위아래로 잇대어 쓰는 방법인 연서로 ‘ㅁ, ㅂ, ㅅ, ㅈ’과 같은 글자를 만들 수 있다.  
 ③ (다)를 통해 가획된 자음자와 그 기본자는 소리 나는 위치가 같고, 그 모양도 비슷함을 알 수 있다.  
 ④ (다)에서 가획의 원리에 따라 ‘ㄱ’에 획을 더해서 ‘ㅋ’을, ‘ㄴ’에 획을 더해서 ‘ㄷ, ㅌ’을, ‘ㄹ’에 획을 더해서 ‘ㄴ, ㄹ’을, ‘ㅁ’에 획을 더해서 ‘ㅂ, ㅍ’을, ‘ㅅ’에 획을 더해서 ‘ㅈ, ㅊ’을, ‘ㅇ’에 획을 더해서 ‘ㅎ(여린히읃), ㅎ’을 만들었는데, 획을 하나씩 더할 때마다 소리가 더 세진다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 06 (가)와 (나)에서 자음자의 기본 다섯 글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자는 하늘과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과 ㉡에는 상형의 원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7 자음자의 기본자인 ‘ㅇ, ㄴ, ㅅ’에 획을 더하여 만든 이체자는 ‘ㅓ(옛이음), ㄹ, ㅏ(반치음)’이다.
- 08 기본자를 한 번만 결합하여 첫 번째로 생겨난 글자를 초출자라 하고, 두 번 결합하여 거듭 생겨난 글자를 재출자라 한다. ‘ㅛ, ㅜ, ㅠ, ㅋ’가 재출자에 속한다.

- 오답 풀이** ① (라)에서 모음자는 기본자 ‘ㅣ’와 ‘ㅓ’를 합하여 ‘ㅓ, ㅛ’를, ‘ㅣ’와 ‘ㅣ’를 합하여 ‘ㅏ, ㅛ’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② (라)에서 ‘ㅓ, ㅏ, ㅛ, ㅜ’에 ‘ㅣ’를 다시 합하여 만든 것이 ‘ㅛ, ㅜ, ㅠ, ㅋ’라고 하였다.  
 ③ (나)에서 모음자는 천지인(天地人), 즉 하늘과 땅, 사람을 본떠었다고 하였다.  
 ④ (라)에서 ‘ㅓ, ㅏ, ㅛ, ㅜ’는 기본자를 한 번만 결합하여 첫 번째로 생겨난 것이어서 초출자라 한다고 하였다.

- 09 한글 자판은 자음자 열네 자, 모음자 열두 자로 자음자와 모음자의 수가 비슷하다(㉠). 그리고 자판에 자음자와 모음자가 좌우로 나뉘어 배치되어 있어(㉡) 문자를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

### 참고 자료

#### 한글 표기 방식의 장점

한글은 창제 원리가 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모아쓰기’라는 표기 방식을 선택하여 더욱 효율적이다. 한글을 창제할 때 소리가 분석되는 최소 단위의 음소 단위로 문자를 만들고, 소리 낼 때를 고려하여 이것을 음절 단위로 모아쓰도록 규정하였으니, 자모 24자만으로 11,172개나 되는 글자를 만들 수 있다.

- 10 ㉠의 ‘눈’은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인 ‘눈[眼]’을 의미하므로 단음 ‘눈[눈]’으로 발음하고, ㉡의 ‘눈’은 ‘대기 중의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땅 위로 떨어지는 얼음의 결정체’인 ‘눈[雪]’을 의미하므로 장음 ‘눈[눈:]’으로 발음한다. 그리고 ㉢의 ‘말’은 ‘말과의 포유류’인 ‘말[馬]’을 의미하므로 단음 ‘말[말]’로 발음하고, ㉣의 ‘말’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 기호’인 ‘말[語]’을 의미하므로 장음 ‘말[말:]’로 발음한다.
- 11 <보기>의 대화에서 학생들은 ‘착용 로봇을 개발하는 공학자를 소개’하기로 발표 목적을 정하였다.
- 12 (라)에서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때문에 산업 재해를 예방하려는 사람들이 보조 기기용 착용 로봇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① (다)에서 발표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소방관이 착용 로봇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고 불확실하게 대답하였다.  
 ② (다)에서 착용 로봇은 재난 구조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착용 로봇은 사람이 옷처럼 입거나 몸에 장착하여 사람의 동작을 보조해 주는 로봇으로, 구조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마)에서 착용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로봇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 기본이 되는 수학과 과학 공부를 성실히 하고, 관련 학과에 진학해 전공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⑤ (나)에서 착용 로봇 공학자가 하는 일 중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로봇의 움직임이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13 (가)는 착용 로봇의 개념과 종류, (나)는 착용 로봇 과학자가 하는 일, (다)는 착용 로봇의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 (라)는 착용 로봇 공학자의 직업 전망, (마)는 착용 로봇 공학자가 되는 법에 대하여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빈칸에는 착용 로봇 공학자의 직업 전망이 들어가야 한다.

14 <보기>는 전 세계 착용 로봇 시장의 규모를 그래프로 제시한 것으로, 착용 로봇의 산업 전망과 관련된 수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라)의 '그래프에 나타난 바와 같이~전망도 밝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를 참고할 때, <보기>의 자료는 (라)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5 설문 조사 결과 우리 반 친구들이 '착용 로봇'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았으므로 '착용 로봇'의 개념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가)의 '착용 로봇이란 옷처럼 입거나 몸에 장착하여 사람의 동작을 보조해 주는 로봇입니다.'에서 착용 로봇의 개념을 정의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16 ㉠에서 발표자는 청중의 질문에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중의 예상 질문을 생각해 보고 답변을 미리 준비하는 방안을 세울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발표를 시작할 때 발표의 차례를 알려 주지 않은 것이 아쉬울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다.

③ 발표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서 발표문을 쳐다보며 읽는 시간이 길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다.

④ 발표할 때 정확하게 발음했는지, 제시한 자료의 표기는 정확했는지 헷갈릴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다.

⑤ 발표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지 못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다.

17 발표를 듣는 사람은 바른 자세로 발표자를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짓는 등 발표자에게 호응해 주면서 경청해야 한다. 발표자의 긴장을 줄여 주기 위해 발표자를 쳐다보지 않는 것은 올바른 듣기 태도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④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이를 메모하고, 질의 응답 시간에 발표자에게 질문해야 한다.

② 발표의 주제를 고려하며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며 들으면 발표의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③ 듣는 목적을 고려하며 발표를 들었을 때, 더 효과적으로 발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발표를 할 때와 들을 때의 적절한 준언어·비언어적 표현**

- 발표를 할 때: 목소리의 크기, 말의 빠르기, 어조, 손짓, 몸동작 등
- 발표를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기, 질문에 대답하기, 신체 기울이기, 긍정적인 표정 짓기 등

**한 걸음 더 서술형 문제**

01 '달, 돌, 들, 들'의 뜻을 구별하는 음운은 'ㄷ, ㄱ, ㅌ, ㄴ'이고, 모음에 해당한다. 모음은 발음할 때 발음 기관에 의해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는 소리이다.

02 ㉠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움직임, ㉡ 하늘과 땅, 사람

03 ㉢는 풀어쓰기, ㉣는 모아쓰기의 방식이다. ㉣는 발음과 표기의 단위가 일치하여 의미 파악에 용이하고, 글자를 썼을 때 공간을 적게 차지하여 한눈에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04 [밤:나무], [알밤], [밤]

05 예상 청중인 우리 반 친구들의 관심, 요구, 수준 등을 고려해서 발표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06 • 발표 전략: 청중에게 발표 주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던진다.  
• 효과: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07 • ㉠: 준언어적 요소 • ㉡가 사용된 부분: 힘을 주어 강조하며

08 수지가 한 말의 의도를 진우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지는 거절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되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01 '달, 돌, 들, 들'에서 뜻을 구별해 주는 음운은 모음인 'ㅏ, ㅑ, ㅓ, ㅕ'이다. 모음은 발음할 때 발음 기관에 의해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는 소리이다.

평가 기준	확인
'달, 돌, 들, 들'에서 뜻을 구별해 주는 음운인 'ㅏ, ㅑ, ㅓ, ㅕ'라는 내용을 썼다.	<input type="checkbox"/>
음운이 모음이고, 모음은 발음할 때 발음 기관에 의해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는 소리라는 내용을 썼다.	<input type="checkbox"/>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input type="checkbox"/>

02 자음자의 기본자 'ㄱ, ㄴ, ㅁ, ㅂ, ㅅ, ㅇ'은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으며, 모음자의 기본자 'ㅏ, ㅑ, ㅓ'는 하늘과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평가 기준	확인
자음자의 기본자가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썼다.	<input type="checkbox"/>
모음자의 기본자가 하늘과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썼다.	<input type="checkbox"/>

03 ㉠은 문장의 자음자와 모음자를 풀어쓴 문장이고, ㉡는 모아쓴 문장이다. 자음자와 모음자를 모아쓰면 글자를 더 쉽게 읽을 수 있고 글자를 썼을 때 공간을 덜 차지하여 한눈에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은 자음과 모음이 풀어써져 있고 ㉡는 모아써져 있다는 차이점을 밝혀 썼다.	<input type="checkbox"/>
㉠와 비교할 때 ㉡는 내용을 파악하기 수월하고 한눈에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	<input type="checkbox"/>

한 걸음 더 고득점 문제

- 01 ⑤    02 소리 내는 방법    03 ④    04 ⑤    05 가획자는  
 획을 더할수록 소리가 세지는 반면, 이체자는 획을 더해도 소리가  
 세지지 않는다.    06 ②    07 ④    08 ③    9 ②  
 10 ④    11 ⑤    12 ③    13 ④

04 '밤나무'의 '밤'은 열매를 의미하므로, 장음 '밤나무[밤:나무]'로 발음한다. '알밤'의 '밤'은 두 번째 음절에서 단음으로 바뀌므로, 단음 '알밤[알밤]'으로 발음한다. 그리고 감감한 '밤'은 '해가 저서 어두워진 때부터 다음 날 해가 떠서 밝아지기 전까지의 동안.'을 의미하므로, 단음 '밤[밤]'으로 발음한다.

평가 기준	확인
단음 '밤[밤]'과 장음 '밤[밤:]'을 구분하여 썼다.	<input type="checkbox"/>
'알밤'이 두 번째 음절에서 단음으로 발음된다는 것을 알고 '알밤[알밤]'으로 썼다.	<input type="checkbox"/>

05 발표를 계획할 때 예상 청중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면 예상 청중이 발표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 청중의 관심, 요구, 수준 등을 고려해서 발표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예상 청중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썼다.	<input type="checkbox"/>
한 문장으로 썼다.	<input type="checkbox"/>

06 청중에게 발표 주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던지면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발표 전략과 효과를 모두 알맞게 썼다.	<input type="checkbox"/>
각각 한 문장으로 썼다.	<input type="checkbox"/>

07 말투와 어조 등은 준언어적 요소에 해당한다. 이 글의 '힘을 주어 강조하며'에서 어조와 성량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면 발표에서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썼다.	<input type="checkbox"/>
이 글에서 ㉠가 사용된 부분을 찾아 썼다.	<input type="checkbox"/>

08 진우와 수지가 대화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진우가 수지가 한 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지는 진우에게 거절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되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대화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를 진우의 입장에서 썼다.	<input type="checkbox"/>
대화의 개선 방안을 수지의 입장에서 썼다.	<input type="checkbox"/>
각각 한 문장으로 썼다.	<input type="checkbox"/>

01 최소 대립쌍은 같은 위치에 있는 하나의 소리로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한다. '담'과 '달'은 모음이 'ㅏ'와 'ㅑ'로 서로 다르고, 받침 역시 'ㅁ'과 'ㄴ'로 서로 다르므로, 최소 대립쌍이 아니다.

02 국어의 자음은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파열음 'ㄱ, ㅋ, ㆁ, ㄷ, ㅌ, ㅍ, ㅈ, ㅊ, ㅍ', 파찰음 'ㅅ, ㅆ, ㅈ, ㅊ, ㅍ', 마찰음 'ㅅ, ㅆ, ㅎ', 콧소리 'ㄴ, ㄹ, ㅇ', 흐름소리 'ㄹ'로 나눌 수 있다.

03 자음 'ㅆ'은 잇몸에서 소리 나며(잇몸소리), 입안이나 목청의 통로를 좁혀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마찰음)이다. 또한 예사소리에 비해 강하고 단단한 느낌이 드는 소리(된소리)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ㅅ'은 잇몸소리, 마찰음, 예사소리에 해당한다.  
 ② 'ㅌ'은 잇몸소리, 파열음, 거센소리에 해당한다.  
 ③ 'ㅍ'은 잇몸소리, 파열음, 된소리에 해당한다.  
 ⑤ 'ㅆ'은 센입천장소리, 파찰음, 된소리에 해당한다.

04 '누'는 입을 조금 열고 혀의 위치를 높여서 발음하는 고모음이지만, '노'는 입을 보통으로 열고 혀의 높이를 중간으로 하여 발음하는 모음을 중모음이다.

- 오답 풀이 ① '지'의 'ㅈ'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열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파찰음이자 성대를 긴장시키지 않고, 공기를 약하게 내보내는 예사소리에 해당한다.  
 ② '화'의 'ㅎ'은 목청에서 소리가 나는 목청소리에 해당한다.  
 ③ '화'의 'ㅏ'는 소리를 낼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이중 모음에 해당한다.  
 ④ '온'과 '난'의 'ㄴ'은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콧소리에 해당한다.

05 가획자는 기본자에 획을 하나씩 더해서 만드는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고, 획을 하나씩 더할 때마다 소리가 더 세진다는 특성이 있다. 반면 이체자 'ㅇ(옛이응), ㄹ, ㅅ(반치음)'은 각각 자음자의 기본자인 'ㅇ, ㄴ, ㅅ'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으나, 소리가 세지는 것은 아니다.

평가 기준	확인
획을 더할수록 가획자는 소리가 세지고, 이체자는 소리가 세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썼다.	<input type="checkbox"/>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input type="checkbox"/>

06 '내'는 초출자 'ㄴ'과 'ㅏ'를 결합한 뒤 기본자 'ㅣ'를 결합해 만들었다. 따라서 초출자끼리 합치거나 재출자끼리 합친 동출 합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ㅅ'는 초출자 'ㅅ'와 'ㅅ'를 결합해 만들었다.

③ 'ㅃ'는 재출자 'ㅃ'와 'ㅃ'를 결합해 만들었다.

④ 'ㄱ'는 초출자 'ㄱ'와 'ㄱ'를 결합해 만들었다.

⑤ 'ㄴ'는 재출자 'ㄴ'와 'ㄴ'를 결합해 만들었다.

**07** 모아쓰기는 자음자와 모음자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음절을 단위로 모아서 쓰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말을 할 때는 한 덩어리로 소리 나기 때문에 첫소리, 가운데소리, 끝소리로 하나의 음절을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모아쓰기는 발음 단위와 표기 단위가 일치하여 문자의 가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08** 각자 병서(㉠)는 같은 자음자 둘 이상을 옆으로 나란히 쓰는 방법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과 같은 글자가 이에 해당한다. 합용 병서(㉡)는 다른 자음자 둘 이상을 옆으로 나란히 쓰는 방법으로, 'ㅃ, ㅄ, ㅅ, ㅆ, ㅈ, ㅊ, ㅌ'과 같은 글자가 이에 해당한다. 연서(㉢)는 자음자 둘을 위아래로 잇대어 쓰는 방법으로 'ㄱ, ㅋ, ㆁ, ㆅ'과 같은 글자가 이에 해당한다. 'ㅇ'은 각자 병서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한글의 창제 원리**

- 상형의 원리: 자음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모음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기본자를 만들.
- 가획의 원리: 자음자의 기본자에 획을 더해 새로운 글자를 만들.
- 합성의 방법: 모음자의 기본자를 서로 합성하여 씀.
- 그 외의 글자를 만든 방법: 자음 두 자를 위아래로 잇대어 씀. 자음 두 자 이상을 옆으로 나란히 씀. 모음자끼리 글자를 더하여 씀.

**09** 『훈민정음』의 「어제 서문」은 세종 대왕이 이 책에 직접 쓴 머리말로,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를 밝힌 글이다. <보기>에는 훈민정음의 자주정신, 애민 정신, 창조 정신, 실용 정신이 담겨 있을 뿐, 훈민정음이 창제된 원리와 구성 체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로 우리나라 말이 한자와 다르다는 것, 백성들이 가여웠다는 것 등이 나타난다.

③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 말과 달라 한자로 쓴 글과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④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⑤ '사람마다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참고 자료**

**세종의 문자관**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은 말이 마음을 드러내는 도구라고 생각했다. 이는 백성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백성을 다스릴 수 없고, 한자나 한문으로는 백성이 자신의 뜻을 충분히 드러낼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래서 세종은 백성이 쉽게 익혀 잘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든 것이다.

**10** 준언어적 표현 전략에는 성량, 속도, 어조 등이 있다. ㉠은 말의 분위기인 어조, ㉡은 목소리의 크기인 성량에 해당한다. 한편 비언어적 표현 전략에는 시선, 표정, 몸짓 등이 있다. ㉢은 감정이나 심리 상태가 표현되는 표정, ㉣은 몸의 일부나 몸 전체의 동작인 몸짓, ㉤은 눈이 향하는 방향인 시선에 해당한다.

**11** (가)에서 발표자는 '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보셨나요?'라고 질문한 후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많은 분들이 보셨군요.'라고 말하며 청중과 상호 작용(L)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착용 로봇'을 입은 덕분인데요.'라고 힘을 주어 강조하며 말하여 중요한 내용을 강조(C)하고 있다. 또한 '영화에는 강한 신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라고 청중에게 발표 주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던짐으로써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관심을 유발(M)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ㄱ. (가)에서 발표자는 발표를 시작할 때 '착용 로봇을 만드는 공학자라는 발표 주제를 밝혔으나 발표 순서를 안내하지는 않았다.

ㄴ. (가)는 발표의 도입부로, 발표자는 청중의 관심을 끌려고 하고 있으나, 청중이 지루해지지 않도록 말하기 속도를 조절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12** (다)를 통해 착용 로봇 공학자는 착용 로봇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개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나)를 통해 착용 로봇의 개념과 착용 로봇의 종류를 알 수 있다.

④ (다)를 통해 일반 로봇과 다른, 착용 로봇의 특징을 알 수 있다.

⑤ (라)를 통해 착용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한 방법과 착용 로봇 공학자와 관련된 학과를 알 수 있다.

**13** 발표할 때 발표 내용을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전 등을 통해 정확한 발음을 익히고 연습해야 한다. 발음을 크게 나 작게 하는 것은 발음의 정확도와 관련하여 알맞은 개선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 4 의미 있는 경험, 나만의 표현

## 01 개성적으로 발상하고 표현하기

### 소단원 한눈에 보기

266~267쪽

- 1 (1) 반대 (2) 모순 (3) 비판
- 2 (1) ○ (2) × (3) ○
- 3 (1) 그리워하고 (2) 반어
- 4 첫사랑, 역설
- 5 (1) × (2) × (3) ○
- 6 (1) 풍자 (2) 양반 매매 문서

### 제재 ① 「먼 후일」

#### 스스로 확인하기

270~271쪽

- (1) ○ (2) 운율 (3) 가정

#### 내용 확인 문제

270~271쪽

- 1 ③    2 잊었노라    3 ④    4 ⑤

- 1 이 시는 화자인 '나'가 '당신'과 이별한 상황에서 먼 훗날에도 '당신'을 잊지 못하는 마음을 반어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화자가 떠난 '당신'을 원망하며 질책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② 이 시의 화자는 '잊었노라'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④, ⑤ 이 시는 '당신'이 먼 훗날 화자를 찾아온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가 '당신'과 이별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2 '잊었노라'는 '당신'을 잊을 수 없는 '나'의 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반어적 표현이다. 이런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나'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3 이별한 입을 잊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통해 슬픔과 애절함, 그리움,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움의 정서는 이 시에서 느낄 수 없다.
- 4 ㉠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당신'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당신'을 결코 잊을 수 없는 화자의 그리움이 강하게 나타나는 구절이다. 그러므로 미래에는 '당신'을 잊었다는 '나'의 다짐이 드러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제재 ② 「첫사랑」

#### 스스로 확인하기

272~273쪽

- (1) × (2) 눈, 눈꽃 (3) 첫사랑

#### 내용 확인 문제

272~273쪽

- 1 ④    2 ④    3 아름다운 상처    4 ④

- 1 이 시는 3음보의 율격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짜그락 짜그락', '난분분 난분분',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과 같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말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2 풍자는 부정적인 대상을 과장하거나 희화화하여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표현 방식으로, 이 시에는 풍자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에서는 눈이 나뭇가지를 두드리는 소리를 '짜그락 짜그락', 눈이 흩날리는 모습을 '난분분 난분분'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음성 상징어는 세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는 기능을 한다.

② 이 시는 나뭇가지에 눈이 내리고 눈이 녹은 자리에 꽃이 피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여 회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③, ⑤ 눈이 내리고 녹는 자연 현상에 빗대어 첫사랑의 의미를 비유적, 역설적으로 나타냈다.
- 3 '아름답다'와 '상처'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첫사랑의 아픔 뒤에 찾아오는 성숙한 사랑의 가치를 역설적,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4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은 눈의 도전과 시련으로 얻어 낸 눈꽃, 즉 역경을 딛고 이룬 첫사랑을 의미한다.

#### 활동 응용 문제

274~277쪽

- 1 당신    2 ④    3 ③    4 첫사랑    5 ⑤    6 ⑤

- 1 이 시의 화자는 '당신'을 잊었다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는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반대로 말하여 강조하는 반어적인 표현이다.
- 2 ㉠은 '당신'을 잊지 못하는 화자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은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생각이나 감정을 강조할 수 있고, 직접적인 표현보다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의 표현을 통해 '당신'과의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반어는 실제로 처한 상황이나 실제 속마음과는 반대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키가 많이 자란 동생에게 '금방 언니만큼 자라겠어.'라고 한 언니의 말은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므로 반어가 사용된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심하게 다툼 형제에게 엄마가 '잘한다'고 표현했으나, 그 안에는 꾸중의 의미가 담겨 있다.
  - ② 비가 와서 소풍을 가지 못한 상황에서 친구가 '날씨가 좋다'고 표현했으나, 그 안에는 안 좋은 날씨 때문에 소풍을 가지 못한 아쉬움 등이 담겨 있다.
  - ④ 큰 소리로 떠드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목소리가 작다'고 표현했으나, 이는 큰 목소리에 대해 주의를 주는 것이다.
  - ⑤ 병든 아내가 세상을 떠나 슬픈 날 남편이 '운수가 좋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운수가 좋지 않고, 슬픈 날임을 표현한 것이다.

4 이 시는 나뭇가지에 눈이 내리는 모습을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시련으로, 나뭇가지에 눈꽃이 핀 모습을 첫사랑을 이루었을 때의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자연 현상에 빗대어 첫사랑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5 이 시는 눈이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기 위해 도전하는 모습과 마침내 피워 낸 눈꽃, 그리고 눈이 녹은 자리에 봄꽃이 피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아름다운 봄꽃이 바람에 휩 날아가는 장면은 이 시에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1연에서 눈은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② 2연에서 눈은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기 위해 고전하며 여러 번 미끄러지고 있다.
  - ③ 3연에서 눈은 '햇숨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도전과 헌신 끝에 마침내 '황홀'과도 같은 눈꽃을 피워 내고 있다.
  - ④ 4연에서 봄에 눈꽃이 피었다가 녹은 '덴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인 봄꽃이 피어나고 있다.

6 「첫사랑」에는 눈꽃이 있던 자리에 피어난 봄꽃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나타내었다. 이는 첫사랑의 실렘이 아니라, 첫사랑의 아픔을 겪은 후에 도달한 성숙한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다.

### 제재 ③ 「양반전」

#### 스스로 확인하기

- (1) ○ (2) × (3) 규범 (4) 풍자 (5) 특권 (6) ×

278-285쪽

#### 내용 확인 문제

278-285쪽

- 1 ⑤ 2 ③ 3 ⑤ 4 ② 5 허례허식 6 ⑤ 7 ③  
8 ③ 9 ③ 10 도둑놈

1 이 글의 '양반'은 '부자'에게 양반 신분을 팔고 나서 병거지를 쓰고 잠방이를 걸친 평민의 차림새를 하고 있으며, 바닥에 엎드린 채 군수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을 '소인'이라고 칭하고 있다. 즉 '양반'은 '부자'에게 양반 신분을 판 뒤에는 평민처럼 행동하였다.

2 '부자'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양반 앞에서는 굽실거려야 하고, 자세를 낮추어야 하며, 업신여김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를 통해 양반들에게 천대받는 처지에서 벗어나 양반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서 양반 신분을 사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양반은 비록 가난하더라도 항상 존경받고', '우리는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하찮은 대접을 받고' 등에 나타나는 '부자'의 말을 통해 부자의 권위보다 양반의 권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양반, 평민 등의 신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부자'와 '양반'의 신분 매매를 통해 신분을 사고팔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부자'를 통해 부를 축적한 평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당시의 양반은 여러 특권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이 글의 등장인물인 '양반'을 통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의 양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첫 번째 양반 매매 문서는 '천하고 보잘 것 없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함', '새벽 일찍 일어나 어려운 옛 책을 읊어야 함' 등과 같이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과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5 첫 번째 양반 매매 문서에서는 생산적인 일은 하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체면을 중시하고, 사소한 행동까지 의무와 규범을 따르는 허례허식에 얽매어 있는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6 이 글에서 조선 후기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 계층을 대변하는 인물은 '군수가 아니라 '양반'이다.

- 오답 풀이**
- ① 마을의 '부자'가 '양반'의 신분을 사고, 이에 '군수'는 양반 매매 문서를 작성한다.
  - ② 문서 끝에 '군수'가 수결을 놓았다고 하였다.
  - ③ '군수'는 양반이 지켜야 할 의무와 규범을 담은 첫 번째 양반 매매 문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부자'가 양반이 되는 것을 은근히 방해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군수'는 '양반'과 '부자' 사이에서 양반 매매 문서를 작성하며 신분 매매의 증거를 남겼다.

7 첫 번째 양반 매매 문서에 양반은 '쌀값이 얼마인지 알려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 이와 같은 내용에 실생활과 관련된 일을 멀리하는 양반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8 '부자'는 첫 번째 양반 매매 문서를 보고, 양반으로서의 의무와 규범만 알고 이익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에 자신에게 이

익이 되도록 문서를 고쳐 달라고 '군수'에게 요구하여, '군수'가 두 번째 양반 매매 문서를 쓰게 한다. 즉 두 번째 양반 매매 문서는 '부자'의 요구로 '군수'가 다시 작성한 문서이다.

- 9 '부자'는 두 번째 양반 매매 문서에 적힌 양반의 특권이 부당하다고 여겨 양반이 되기를 포기한다. 이는 '부자'의 '나를 이제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이요?'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 10 작가는 '부자'의 입을 통해 부당한 특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양반을 '도둑놈'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활동 응용 문제**

286~291쪽

- 1 ⑤    2 ①    3 ⑤    4 ③    5 ⑤    6 ㉠ 반대  
 ㉡ 진실    ㉢ 비판    7 ④    8 ④

- 1 첫 번째 양반 매매 문서에는 양반이 지켜야 할 온갖 의무와 규범이 적혀 있다. 그러나 양반이 이웃의 소를 끌어들 내 밭을 먼저 갈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양반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두 번째 매매 문서의 내용이다.
- 2 '부자'가 평소에 받던 차별에 대해 말하는 장면은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 주는 것으로, '양반'에 대한 풍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아내'의 '한 퉁어치도 안 되는 양반!'이라는 말을 통해 양반의 경제적 무능에 대해 풍자하고 있다.

③ '군수'가 작성한 첫 번째 양반 매매 문서에는 양반으로서의 의무와 규범이, 두 번째 양반 매매 문서에는 양반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나타난다. 이는 양반의 허례허식에 얽매인 모습과 부도덕한 모습을 풍자한 것이다.

④ '양반'이 울기만 하는 모습은 양반의 무능력한 모습을 풍자한 것이다.

⑤ '부자'가 마지막 부분에서 양반을 '도둑놈'이라고 평가하는 모습은 양반에 대한 풍자가 절정에 다다른 부분이다.
- 3 이 글에서는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희화화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풍자를 통해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그 비판에 대한 공감을 확대한 것이다.
- 4 풍자는 어떤 시대나 사회, 인물의 부조리 같은 부정적인 대상을 과장 또는 희화화하여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표현 방식이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사람은 비판해야 하는 부정적인 대상이 아니므로, 풍자를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5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는 글을 쓸 때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가져다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적절하다.
- 6 반어는 실제로 처한 상황이나 실제 속마음과는 반대로 표현하는 방식, 역설은 겉으로는 뜻이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속에 말하고자 하는 의미나 진실을 담아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리

고 풍자는 어떤 시대나 사회, 인물의 부조리와 같은 부정적인 대상을 과장하거나 희화화하여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바람직한 상태나 결과를 추구하는 표현 방식이다.

- 7 수필은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이나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쓴 글이다. 수필에는 반어, 역설, 풍자, 비유, 상징 등과 같은 문학적 표현 방식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 8 반어를 활용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나 주제가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어와 같은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는가?', '글의 주제가 잘 드러나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

**문해력 키우기**

293쪽

- 1 ×    2 ○    3 ×    4 ○    5 나무라지    6 좇아  
 7 난분분하는    8 축낸다고    9 수결    10 횡포  
 11 허례허식    12 무위도식

**확인 문제**

295쪽

- 1 ㉡    2 ㉢    3 ㉠    4 가정    5 잊었노라    6 황홀  
 7 역설적    8 ○    9 ×    10 ×

**발전 활동**

**활동 응용 문제**

296~297쪽

- 1 ②    2 ④

- 1 이 시는 자식을 보고 싶어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뭘 하러 오냐'라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강조한 시이다.
 

**오답 풀이** ① 자식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나타낸 시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판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 화자의 감정을 웃기게 표현한 것은 아니다.

④ 이 시에 비판의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⑤ 뜻이 모순된 표현으로 그 속에 담긴 진실을 전달하는 표현 방식은 역설로, 이 시에 사용되지 않았다.
- 2 반어, 역설, 풍자와 같은 표현 방식을 사용하면, 의미를 강조하고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또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반어나 풍자와 같은 표현 방식으로 부정적인 대상을 간접적으로 비판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 소단원 평가

298~303쪽

- 01 ③    02 ⑤    03 '당신'을 잊을 수 없다.    04 ①, ②  
 05 ③    06 ⑤    07 ⑤    08 ⑤    09 ③    10 ③  
 11 ④    12 ⑤    13 ②    14 평민, 신분    15 ⑤    16 ②  
 17 ②    18 ②    19 ④    20 ③    21 ①    22 ①, ⑤  
 23 ③    24 나를 이제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이오?    25 부자는, 섰다.    26 ③    27 ①

01 이 시는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화자(나)의 마음을 표현한 시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과 같이 미래에 '당신'이 '나'를 찾아온 상황을 가정하여 말하고 있다.

②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화자의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⑤ 화자인 '나'는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있었노라'라고 표현하고 있다.

02 이 시는 '당신'이 화자를 찾아올 먼 훗날을 가정하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다가 먼 훗날 잊겠다고 노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별한 임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03 이 시의 '있었노라'는 '당신'을 결코 잊을 수 없는 간절한 마음을 강조한 반어적 표현이다. 따라서 이에 담긴 화자의 속마음은 '당신'을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것이다.

04 <보기>의 화자인 '나'는 여전히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으며 '이젠 당신이 그리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저버렸는데' 등에서 실제로 처한 상황이나 실제의 속마음과는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③ 이 시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으므로 '당신'과의 재회를 바란다고 볼 수 있다.

④ 이 시와 <보기>에 떠난 '당신'을 원망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보기>에서만 자연물인 '비'에 기대어 슬픈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05 이 시는 3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어 각 행을 세 마디로 자연스럽게 끊어 읽을 수 있다. 따라서 '먼 훗날∨당신이∨찾으시면 / 그때에∨내 말이∨있었노라'와 같이 끊어 읽는 것이 적절하다.

06 ㉠에는 어제도 오늘도 줄곧 당신을 잊지 않고 그리워하는 화자의 본심이 드러난다.

07 이 시는 음성 상징어인 '짜그락 짜그락'(의성어), '난분분 난분분'(의태어)을 통해 눈꽃을 피우기 위해 눈이 도전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② 반어적 표현이 아닌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③ 동일하거나 유사한 말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다.

④ '눈'을 소재로 하여 첫사랑의 의미를 그려 내고 있다.

08 이 시는 나뭇가지에 눈이 내리고, 눈이 녹은 자리에 꽃이 피는 자연 현상에 빗대어 첫사랑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눈꽃과 첫사랑은 모두 인내와 헌신의 과정을 겪어야 이루어질 수 있지만, 또 쉽게 사그라들 수 있기도 하다. 이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시의 제목이 '첫사랑'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09 이 시에서 서로 반대되는 대상이나 내용을 내세워 주제를 강조하거나 인상을 선명하게 표현하는 '대조법'은 쓰이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②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의 인법과 설의법이 쓰였다.

④ '햇숨 같은 마음'에 직유법이 쓰였다.

⑤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아름다운 상처'에 은유법이 쓰였다.

## 참고 자료

### 의인법과 설의법

의인법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대상, 동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 ㉠ 파도가 소리친다.
설의법	누구나 쉽게 알 만한 사실을 의문문으로 표현하는 방법 ㉠ 한 치의 국토라도 빼앗길 수 있습니까?

10 이 시의 3연에 나타나는 '햇숨'은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기 위해 계속해서 도전하는 '눈'의 순수한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 끝에 피어난 눈꽃을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에 비유하고 있다. 따라서 '햇숨'을 나뭇가지의 희생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11 '짜그락 짜그락'은 눈이 나뭇가지를 두드리는 소리로, 청각적 심상에 해당하고, '난분분 난분분'은 눈이 흘날리는 모습으로, 시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12 '아름다운 상처'는 첫사랑의 아픔 뒤에 찾아오는 성숙한 사랑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강조한 표현이다. 이와 같이 겉으로 모순되어 보이는 표현 속에 숨은 의미를 강조한 역설이 쓰이지 않은 것은 ⑤이다. ⑤는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반어가 쓰였다.

13 '양반'을 잡아 가두라는 '관찰사'의 말에도 '군수'는 '양반'을 차마 잡아 가두지 못한다. 이는 '군수가 같은 양반으로서 '양반'의 처지를 동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가)에 따르면 '양반'이 고을 관청에서 곡식을 꾸어다 생활했고, 그것이 천 석이나 되었다고 하였다.

③ (나)에서 '아내'는 울기만 하는 '양반'을 나무라며 '한 푼어치도 안 되는 양반'이라고 하고 있다.

- ④ (라)에서 '부자'는 양반을 찾아가서 자신이 곡식을 갚는 대신 양반 자리를 팔라고 하였고, 양반의 승낙에 곧장 그렇게 하였다.
- ⑤ (다)에서 '부자'는 항상 존경받는 양반과 달리 늘 업신여김을 받아야 하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 14** 이 글의 '양반'은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이어서 관청에서 곡식을 꾸어다 생활하며 이를 갚지 못하고 있다. 반면 '부자'는 부를 축적한 평민이어서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사려고 하고 있다. 이처럼 당대 사회는 신분 사회였지만, 이러한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 있었다.
- 15** '부자'가 양반 신분을 사려는 이유는 (다)에 나타난다. '부자'는 '양반'을 진심으로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대받는 평민의 신분에서 벗어나 양반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양반 신분을 사려는 것이다.
- 16** ㉠은 곡식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양반'을 아내가 비난하는 말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 17** (가)에서 '군수'는 '문서를 갖춰 놓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다툼을 방지하고 신분 매매의 증거로 삼기 위해 문서를 만들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18** (나)는 '군수'가 작성한 양반 매매 문서로, 양반은 '천하고 보잘 것없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라고 제시되어 있다. (나)는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규범을 제시하여 지나치게 체면과 격식을 중시하고 허례허식에 얽매어 있는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 19** (라)를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양반 매매 문서에는 높은 관직을 차지하여 사치와 유흥을 일삼고, 이웃의 소를 빼앗아 쓰는 등 양반의 특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서는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부도덕한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는 역할을 한다.
- 20**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한 글이다. '군수는 양반의 살림 형편이 어려워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아는지라 차마 잡아 가둘 수는 없었다.', '군수는 놀라 무릎을 쳤다.'와 같이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이나 심리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통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21** (가)에서 '양반'은 어질고 책 읽기를 좋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② '아내'는 무능력한 남편을 비난하며, 양반이 아무 소용 없다고 말하고 있다.
- ③ '부자'는 양반의 신분을 산 것으로 보아 신분에 얽매이며, 현재의 신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 ④ '양반'은 곡식을 갚지 못하여 잡혀갈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울기만 할 뿐,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하지 않았다.
- ⑤ '군수'는 양반 매매 문서를 작성하여 '부자'가 양반이 되는 것을 은근히 방해한다. 그러나 신분 질서를 확고히 하려 하거나 '양반'과 '부자'의 신분 매매를 말린 것은 아니다.

- 22** 이 글은 양반 신분을 사고파는 것과 양반 매매 문서의 내용 등으로 상황을 희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23** 이 글에서 작가가 비판하고 있는 양반의 모습은 무능하고 허례허식을 중시하며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이지, 남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가)에는 고을 관청에서 곡식을 꾸어다 생활하고, 갚을 방법이 없어 울기만 하는 '양반'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무능한 양반의 모습을 알 수 있다.
- ②, ⑤ (라)에는 양반이 지켜야 할 의무와 규범이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양반이 지켜야 할 격식을 나열한 것은 허례허식에 얽매어 있는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기 위해서이다.
- ④ (마)에는 양반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제시되어 있는데, 작가가 작품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은 '이웃의 소를 끌어다가 내 밭을 먼저 갈' 수 있고, '마을 일꾼을 데려다가 김을 매게'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등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모습을 통해 양반을 비판하기 위해서이다.
- 24** '부자'의 말 '나를 이제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이오?'에서 '도둑놈'은 부도덕한 양반을 가리키는 말로, 양반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인 인식이 잘 드러나는 표현이다.
- 25** '부자는 군수를 받들어 일을 보는 좌수와 별감의 오른쪽에 앉고, 양반은 그 아래에서도 더 아래인 아전들의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문장을 통해 '양반'이 '부자'보다 낮은 위치에 있음을, 즉 '양반'과 '부자'의 신분과 사회적 위치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 26** 이 시는 자식을 보고 싶어 하는 엄마의 마음을 반어를 활용하여 강조한 시이다. 겉으로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역설은 이 시에 사용되지 않았다.
- 27** 이 시에는 자식을 그리워하는 엄마의 마음과 반대로 '보고 싶지 않다'고 표현하는 반어가 사용되었다. 약속 시간에 늦은 상황에서 '내가 너무 일찍 왔네?'라고 반대로 표현하는 것은 반어에 해당한다. 이 시에 역설과 풍자는 사용되지 않았다.

## 02 영상 매체 자료 제작하기

### 소단원 한눈에 보기

306~307쪽

1 (1) ○ (2) × (3) ×

2 (1) 청각적 (2) 시각적

3 (1) 복합양식성 (2) 역할, 계획서 (3) 스토리보드

4 (1) 롱 샷 (2) 풀 샷 (3) 클로즈업 샷

5 (1) 안정적인 (2) 하이

6 (1) ○ (2) ○ (3) ×

### 활동 응용 문제

310~319쪽

1 탄소 중립, 실천    2 ①    3 ①    4 정치인의 권위를 표현한다.    5 ⑤    6 ④    7 (1) 카메라의 거리, 각도, 자막 (2) 배경 음악, 효과음, 대사    8 ③    9 ③    10 ⑤  
11 상처

1 민재네 모둠은 '우리 학교 학생들'을 예상 수용자로 하여 '우리 학교 탄소 중립을 지켜라'라는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하려고 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2 민재네 모둠은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러나 영상 촬영에 사용할 소품이나 의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② 민재네 모둠은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기 위해 스토리보드의 개념과 세부 요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③ 영상을 구성할 표현 양식의 특징으로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를 결합하여 복합양식으로 구성하겠다고 하였다.

④ 카메라의 거리와 각도에 따라 다양한 촬영 방법이 있으므로 각 장면의 내용에 맞춰서 촬영 방법을 정하기로 하였다.

⑤ 영상의 내용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점으로 주제, 제작 목적, 예상 수용자 등을 들고 있다.

3 '롱 샷'은 먼 거리에서 대상을 촬영하여 전체적인 상황과 분위기, 동작 등을 전달할 수 있는 화면 구성 방식이다.

**오답 풀이** ② '풀 샷'은 대상의 전체가 화면에 가득 차도록 촬영하는 것으로, 대상에 주목할 수 있는 화면 구성 방식이다.

③ '미디엄 샷'은 대상의 윗부분을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인물일 경우, 상체를 중심으로 동작이나 표정을 전달할 수 있다.

④ '클로즈업 샷'은 대상의 일부를 크게 보여 주어 대상의 세밀한 부분, 인물의 표정 등을 전달할 수 있는 화면 구성 방식이다.

⑤ 카메라의 거리에 따라 화면에 담기는 대상의 크기가 달라진다.

4 '로 앵글'은 대상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며 촬영하는 각도로, 대상의 우월성이나 권위 등을 표현할 수 있다. 정치인이 자신을 지지하는 많은 관중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을 '로 앵글'로 촬영했다면 정치인의 권위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S# 11은 학생들이 선배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미디엄 샷', 선배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늘을 올려다보는 학생들을 '로 앵글'로 촬영하기로 하였다.

6 스토리보드는 전달하려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주요 장면을 정리한 것으로, 연기자의 행동이나 대사, 카메라의 거리와 각도, 배경 음악, 효과음 등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스토리보드는 효율적으로 촬영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므로 수용자의 반응을 미리 예상하고 이를 내용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7 영상 매체 자료는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가 어우러진 복합양식성을 지닌다. 시각적 요소에는 카메라의 거리, 각도, 자막 등이 있으며, 청각적 요소에는 대사, 배경 음악, 효과음 등이 있다.

8 민재네 모둠은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강조하기 위해 화면에 자막을 추가하였다.

**오답 풀이** ① 영상 매체 자료의 주제를 강조할 수 있는 장면을 추가하겠다고 하였다.

② 배경 음악의 소리를 키워서 예상 수용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겠다고 하였다.

④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바꾸는 장면이 잘 보이도록 화면을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⑤ 사용하지 않는 전자 기기를 절전 모드로 설정하는 장면에 효과음을 넣어서 이 행동을 부각하겠다고 하였다.

9 카메라의 거리와 각도는 표현하려는 장면의 내용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영상 매체 자료를 점검하는 기준으로는 '카메라의 거리와 각도를 적절하게 활용했는가?'가 적절하다.

10 영상 매체 자료를 완성한 뒤 공유하기 전에는 영상의 주제 및 내용이 제작 의도에 맞는 지 점검할 수 있으며, 저작권과 관련하여 이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개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았는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그러나 시청하는 사람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인지 확인하는 것은 계획 또는 편집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영상을 완성한 뒤 공유하기 전의 점검 사항과는 거리가 멀다.

11 다른 사람의 영상 매체 자료에 댓글을 남길 때는 긍정적인 감상이나 칭찬할 점을 위주로 적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표현이나 비난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문해력 키우기

321쪽

- 1 역량 2 소외 3 우월성 4 무기력 5 × 6 ○  
7 ○ 8 × 9 ㉠ 10 ㉡ 11 ㉢ 12 ㉣

## 확인 문제

323쪽

- 1 × 2 ○ 3 × 4 ○ 5 ㉡ 6 ㉣ 7 ㉣  
8 스토리보드 9 거리 10 저작권

## 발전 활동

### 활동 응용 문제

324~325쪽

- 1 ④ 2 ⑤ 3 ④

1 '영상 1'과 '영상 2'는 모두 인터넷 예절의 중요성, 그중에서도 댓글의 영향력에 대해 다루고 있다. 댓글의 내용에 따라 댓글을 읽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영상의 수용자가 인터넷 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가. '영상 1'은 설득, '영상 2'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다. '영상 1'과 '영상 2'에 맞춤법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 '영상 1'과 '영상 2'는 온라인상에서의 예절을 다루고 있으며, 오프라인과의 대화법을 비교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2 '롱 숏'은 대상을 먼 거리에서 촬영하는 화면 구성 방식으로, 전체적인 상황이나 분위기, 대상의 동작 등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인물의 표정 변화가 잘 나타나는 화면 구성 방식은 '미디엄 숏'이나 '클로즈업 숏'이다.

3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는 장면과 어울리는 적절한 효과음을 사용하여 수용자의 집중을 유도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는 중요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등 영상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②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 적절한 배경 음악을 활용하면 영상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③ 카메라의 거리와 각도에 따라 화면 속 대상의 크기와 대상을 표현하는 느낌이 달라진다. 따라서 각 장면에서 전달하려는 내용에 맞춰서 촬영 방법을 정해야 한다.  
 ⑤ 영상 매체 자료를 편집할 때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자막을 넣고, 맞춤법에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 소단원 평가

326~329쪽

- 01 ①, ② 02 ① 03 ③ 04 ② 05 시각적 요소:  
 ⑥, ⑦ 청각적 요소: ⑧, ⑨, ⑩ 06 ② 07 거리, 각도  
 08 ③ 09 ① 10 ④ 11 ③ 12 ⑤ 13 (나)는  
 대상을 눈높이보다 위에서 촬영한 하이 앵글이고, (마)는 대상을 아  
 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며 촬영한 로 앵글이다. 14 ④ 15 ⑤  
 16 ⑤ 17 저작권

01 영상 매체 자료는 카메라의 거리, 각도, 자막과 같은 시각적 요소와 대사, 배경 음악, 효과음과 같은 청각적 요소가 어우러져 의미를 전달하는 복합양식성을 지닌다.

02 이 대화에서 학생들은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주제, 제작 목적, 매체 자료의 유형, 분량, 예상 수용자 등을 고려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각 장면의 내용과 자막, 배경 음악, 효과음, 대사 등을 정한다.

③ 촬영하는 단계에서는 카메라의 거리와 각도에 따라 담을 수 있는 장면과 대상의 느낌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서 스토리보드에 따라 촬영한다.

④ 편집하는 단계에서는 주제와 제작 목적이 잘 드러나는지를 고려해서 장면이나 자막과 음향 등을 조절한다.

⑤ 공유하는 단계에서는 저작권을 위반한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개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았는지, 완성한 영상 매체 자료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한다.

03 지유와 민재의 말을 통해 이 모둠에서 제작하려는 영상 매체 자료의 주제가 '교내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04 민재네 모둠은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기 위해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 영상 매체 자료의 제작 목적은 정서 표현이 아닌 정보 전달이다.

05 ⑥ 자막, ⑦ 카메라의 거리와 각도는 보이는 것이므로 시각적 요소에 해당하며, ⑧ 대사, ⑨ 효과음, ⑩ 배경 음악은 들리는 것이므로 청각적 요소에 해당한다. 영상 매체 자료는 이러한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를 모두 가진 복합양식성을 지닌다.

06 전달하려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주요 장면을 정리한 스토리 보드는 영상을 효율적으로 촬영할 수 있게 해 주므로, 영상을 촬영한 후가 아니라 촬영하기 전에 작성해야 한다.

07 영상을 촬영할 때 카메라의 거리에 따라 화면 속 대상의 크기가 달라지고,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 대상을 표현하는 느낌이 달라진다. 따라서 촬영하는 장면에 따라 카메라의 거리와 각도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08 대상의 윗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화면 구성 방식인 '미디엄 샷'으로 인물의 상체가 중심이 되도록 촬영하고, 대상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며 '로 앵글' 각도로 촬영하면 선배들의 당당한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세 명의 선배들을 상체 위주로 촬영하려면 '풀 샷'이 아니라 '미디엄 샷'으로 촬영해야 하며, 선배들의 권위를 강조하려면 '로 앵글'로 촬영해야 한다.

② 대상의 왜소함, 무기력, 소외 등을 표현하는 '하이 앵글'보다는 '로 앵글'이 적절하다.

④ 위기 상황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다.

⑤ 감정을 세밀하게 표현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며, 만약 인물의 표정을 자세히 보여 주려면 '클로즈업 샷'으로 촬영해야 한다.

09 하늘을 올려다보는 두 인물의 표정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물의 상체가 중심이 되도록 '미디엄 샷'으로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풀 샷'은 대상의 전체를 화면에 가득히 촬영하는 방식이므로 인물의 표정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10 <보기>처럼 대상을 눈높이에서 정면으로 촬영하는 '아이 레벨 앵글'은 가장 일반적인 각도로,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11 촬영에 필요한 의상이나 소품 등을 준비하였는지는 촬영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이다.

12 (마)는 '미디엄 샷'으로 촬영한 장면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두 인물의 모습이 잘 나타난다. 또한 영상 매체 자료를 편집할 때는 장면의 배치 순서를 조정하거나 자막, 효과음, 음악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장면을 다시 촬영하기는 어렵다.

13 (나)는 인물이 옆자리 친구의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는 모습이 잘 드러나도록 '하이 앵글'로 촬영하였고, (미)는 인물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이 잘 드러나도록 '로 앵글'로 촬영하였다.

14 영상 매체 자료를 편집할 때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영상의 분량이나 장면의 배치 순서를 조정하고 자막이나 배경 음악, 효과음 등을 삽입할 수 있다. 영상의 제작 목적을 결정하는 것은 계획하기 단계에서 하는 일이다.

15 (나)와 같이 영상 매체 자료에 댓글을 남길 때는 긍정적인 감상이나 칭찬할 점을 위주로 적는 것이 좋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이나 상처를 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6 일상 속 탄소 배출량을 줄여 탄소 중립을 실천하자는 영상이므로, 탄소 배출을 늘리자는 ⑤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7 영상 매체 자료에 배경 음악이나 효과음 등을 삽입할 때, 글이나 사진과 같은 자료를 넣을 때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영상을 공유하기 전에도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완성된 영상 매체 자료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 대단원 평가

334~337쪽

- 01 ②    02 ④    03 반어, 실제와 반대로 표현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강조할 수 있다.    04 ④    05 ④    06 ⑤  
 07 ③    08 한 문어치도 안 되는 양반    09 ②    10 첫 번째 양반 매매 문서에 양반으로서 취할 수 있는 이익이 없었기 때문이다.    11 ②    12 ③    13 ④    14 ④    15 ⑤  
 16 롱 샷, 하이 앵글    17 ⑤

01 (가)에서는 '먼 훗날', '당신이', '나무라면', '잇었노라'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나)에서는 '짜그락', '난분분'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⑤ (가)의 특징에 해당한다.

③, ④ (나)의 특징에 해당한다.

02 (가)의 '잇었노라'는 '당신'을 잊지 못하는 화자의 마음을 반대로 표현하여 강조한 것으로, '당신'을 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03 (가)에서는 '당신'을 잊지 못하는 마음을 '잇었노라'라고 반대로 표현했고, <보기>에서는 가족들을 보고 싶은 마음을 '보고 싶은 뿔이 보고 싶다고'라고 반대로 표현했다. 즉 (가)와 <보기>는 모두 반어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속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04 (나)는 '눈'을 소재로 첫사랑의 의미를 그려낸 시로, 역설을 활용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 시에 실제 상황이 나 마음을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겨울 나뭇가지에 눈꽃이 피고 봄이 되면 그 나뭇가지에 꽃이 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② 나뭇가지에 눈이 내리고, 눈꽃이 피고, 봄이 되어 꽃이 피어나는 모습이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연상되도록 하고 있다.

③ 나뭇가지에 눈이 내리고 눈이 내린 자리에 꽃이 피는 자연 현상에 빗대어 사랑의 의미를 노래하고 있다.

⑤ '아름다운 상처'라는 모순된 표현에서 사랑의 가치를 찾아내고 있는데, 이는 역설을 활용한 표현이다

05 ㉠의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은 눈이 도전과 시련을 통해 피워 낸 눈꽃으로, 헌신과 노력으로 이룬 첫사랑을 의미한다.

06 '군수'는 같은 양반의 신분으로 '양반'의 처지를 동정하고 다독거리려 주려고 하였다. 따라서 '군수'가 '양반'을 함부로 대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사건과 인물의 심리를 모두 전달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고전 소설이다.

② 양반 신분을 매매하는 내용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는 신분제가 흔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작가는 양반의 모습을 희화화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있다.

- ④ 곡식을 갖지 못하고 울기만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양반'의 모습을 희화화한 것이다.
- 07 이 글에서 가난해서 관청에서 곡식을 꾸어다 생활하는 '양반'은 당대의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층을,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사려는 '부자'는 부를 축적한 신흥 부유층을 대변한다.
- 08 '양반'이 관청에서 꾸 곡식을 갖지 못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하자 '양반'의 '아내'는 "에잇, 양반! 한 푼어치도 안 되는 양반!"이라고 말하며 남편을 나무라고 있다. 이와 같은 말을 통해 '양반'의 경제적 무능력함이 강조되고, 작가가 '양반'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이 나타난다.
- 09 (가)에서 양반은 『동래박의』 같은 어려운 옛 책을 줄줄 읊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양반이 어려운 책을 읽는 것이나 학문에 정진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격식을 따지며 어려운 책만 읽고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다.
- 10 (가)에 제시된 문서 내용은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규범만 나타나 있다. 즉 '부자'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양반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부자'는 '군수'에게 문서를 수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 11 ㉠은 양반의 부당한 특권과 횡포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부자'의 말이다. 따라서 '도둑놈'은 '군수'가 아니라 양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 12 (가)에서 '손으로 돈을 만지자 말 것이며 쌀값이 얼마인지 알려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한 부분을 통해, 당시의 양반들이 돈과 관련된 일을 천하게 여기고 실생활과 관련된 일을 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부자'가 '양반'의 신분을 사고 있다.  
 ② '부자'는 양반의 특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두 번째 양반 매매 문서의 내용을 듣고 양반이 되기를 포기하지만, 사회에 저항하고 있지는 않다.  
 ④ 첫 번째 양반 매매 문서의 내용을 통해 당시의 양반들이 지나치게 체면과 격식을 중시하고 허례허식에 얽매어 있었음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양반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이 글에서는 두 개의 양반 매매 문서를 통해 당대 양반들의 허례허식과 부당한 특권을 풍자하고 있다.
- 13 영상 매체 자료를 편집할 때는 촬영한 장면 중 주제나 제작 목적에서 벗어난 장면은 삭제하고, 필요한 장면만 선택하여 분량에 맞게 배치해야 한다.
- 14 영상 매체 자료는 정보 전달, 설득, 홍보, 정서 표현 등의 제작 목적에 맞게 제작해야 한다. 영상 매체 자료를 공유할 매체에 맞게 영상의 형식이나 분량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올린다고 해서 반드시 흥미 위주의 영상으로 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5 스토리보드는 전달하려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주요 장면을 정리한 것으로, 연기자의 행동이나 대사, 자막, 카메라의 거리, 각도, 배경 음악, 효과음 등의 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또한 각 장면에 차례를 나타내거나 장면을 식별하기 위해 장면 번호를 쓰는데, 'S#(scene number)' 뒤에 번호를 넣어 표기한다.
- 오답 풀이** ㄱ. 스토리보드는 촬영 전에 작성하여 촬영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한다.  
 ㄴ. 스토리보드는 촬영 전 주요 장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촬영할 수 있게 한다.
- 16 <보기>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전체적인 분위기와 아이가 앉아 있는 모습을 전달하려면 대상을 먼 거리에서 촬영하는 '롱 샷'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 아이가 느끼는 무기력이나 소외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눈높이보다 위에서 촬영하는 '하이 앵글'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17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는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영상에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글, 사진, 배경 음악, 효과음 등을 삽입할 때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한 걸음 더 서술형 문제**

338-339쪽

- 01 3음보의 율격, 같은 시어의 반복, 같은 문장 구조의 반복 등을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
- 02 ㉠은 어제도 오늘도 '당신'을 잊지 못하고, 앞으로도 '당신'을 잊지 못한다는 의미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03 이 시에서는 의성어인 '싸그락 싸그락', 의태어인 '난분분 난분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 도전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04 역설이 사용된 부분은 '아름다운 상처'이고, 첫사랑의 아픔을 통해 승화된 성숙한 사랑을 의미한다.
- 05 (가)는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규범을 제시하여 지나치게 체면과 격식을 중시하고 허례허식에 얽매어 있는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나)는 양반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제시하여 부당한 특권을 누리기 위해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 06 영상 매체 자료는 카메라의 거리와 각도, 자막 등의 시각적 요소와 배경 음악, 효과음, 대사 등의 청각적 요소가 어우러져 복합양식성의 특징을 지닌다.
- 07 어리둥절한 엄마의 표정이 드러나도록 클로즈업 샷으로 촬영한다.

01 이 시는 '먼 훗날'과 '당신이'와 '찾으시면'과 같은 3음보의 민요적 율격, 시어 '잊었노라'의 반복, '~면 ~ 잊었노라'와 같은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를 두 가지 이상 썼다.	<input type="checkbox"/>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input type="checkbox"/>

02 ㉠은 오늘도 어제도 줄곧 당신을 잊지 않고 먼 훗날 '당신'을 만나면 그때 '잊었노라'라고 말하겠다는 것으로 보아, '당신'을 결코 잊을 수 없는 화자의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반어적 표현을 통해 '당신'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에 담긴 화자의 속마음과 표현 방식을 알맞게 썼다.	<input type="checkbox"/>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input type="checkbox"/>

03 이 시에서는 눈이 나뭇가지를 두드리는 소리를 의성어인 '싸그락 싸그락'으로, 눈이 흩날리는 모습을 의태어인 '난분분 난분분'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표현으로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 도전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음성 상징어를 알맞게 찾아 썼다.	<input type="checkbox"/>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알맞게 썼다.	<input type="checkbox"/>

04 '아름다운 상처'에서 '아름답다'와 '상처'는 의미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지만, 이를 결합하여 첫사랑의 아픔 뒤에 찾아오는 성숙한 사랑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아름다운 상처'가 역설적 표현이라는 것을 썼다.	<input type="checkbox"/>
'아름다운 상처'가 의미하는 것이 '성숙한 사랑'이라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input type="checkbox"/>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input type="checkbox"/>

05 (가)에는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규범이 적혀 있다. 이를 통해 체면과 격식만 중시하고, 허례허식에 얽매어 있는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나)에는 양반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적혀 있다. 이를 통해 생산적인 일은 하지 않으면서 무위도식하고 향락에 젖어 있으며, 권력을 남용해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가)의 내용과 풍자의 대상을 알맞게 썼다.	<input type="checkbox"/>
(나)의 내용과 풍자의 대상을 알맞게 썼다.	<input type="checkbox"/>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input type="checkbox"/>

06 영상 매체 자료는 자막, 카메라의 거리와 각도 등의 시각적 요소와 배경 음악, 효과음, 대사 등의 청각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복합양식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은 내용을

풍부하고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수용자가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평가 기준	확인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의 구체적인 예를 두 가지 이상 제시했다.	<input type="checkbox"/>
영상 매체 자료가 복합양식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input type="checkbox"/>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input type="checkbox"/>

07 '클로즈업 샷'은 대상의 일부를 크게 보여 주는 화면 구성 방식이다. 대상이 인물일 경우, 표정을 자세히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전달하기에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표정이 잘 드러나야 하는 장면임을 썼다.	<input type="checkbox"/>
장면에 어울리는 촬영 방법이 '클로즈업 샷'임을 썼다.	<input type="checkbox"/>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input type="checkbox"/>

### 한 걸음 더 고득점 문제

340~343쪽

01 ④    02 먼 훗날 '당신'이 화자를 찾아올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화자는 '당신'과 이별한 상황이다.    03 ③  
 04 ②    05 ②    06 ④    07 ④    08 ④    09 ③  
 10 ③    11 교내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한다.    12 ③    13 ④

01 (가)에서는 '잊었노라',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와 같이 점층법을 사용하여 잊을 수 없는 화자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는 모두 시로, 글 속에 어떤 뜻을 담고 있는 함축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② (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잊지 못하는 마음, (나)는 눈이 눈꽃을 피우는 과정을 통해 인내와 헌신으로 이루어 낸 성숙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이다.

③ (가)는 '잊었노라' 등으로, (나)는 '싸그락', '난분분' 등으로,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한 말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⑤ (가)는 반어, (나)는 역설이라는 개성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02 화자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이라고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의 화자는 '당신과 이별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화자가 미래, 먼 훗날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input type="checkbox"/>
현재의 화자가 '당신과 이별한 상황'이라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input type="checkbox"/>

03 나뭇가지에 눈이 내리는 것(㉓)은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도전과 시련'을, 눈꽃이 핀 것(㉔)은 끝내 피워 낸 '첫사랑'을, 봄이 되어 꽃이 핀 것(㉕)은 첫사랑이 끝난 후에 이룬 '성숙한 사랑'을 의미한다.

04 (나)는 의인, 설의, 직유, 은유, 역설의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사랑의 의미를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이나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에서 의문을 활용하고 있다.

③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은 눈꽃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직접 연결하는 말 없이 은유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④ '햇살 같은 마음'은 눈의 순수한 희생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같은'을 활용해서 직유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아름다운 상처'는 첫사랑의 아픔을 겪은 뒤에 도달한 성숙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겉으로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역설을 활용하고 있다.

05 '안빈낙도(安貧樂道)'는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키는 모습을 의미한다. 따라서 곡식을 갖지 못해 울기만 하다가 '부자'에게 신분을 파는 '양반'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측은자심(惻隱之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군수'가 '양반'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적절하다.

③ '삼순구식(三旬九食)'은 삼십 일 동안 아홉 끼니밖에 먹지 못한다는 뜻으로, 몹시 가난함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가난한 '양반'과 '아내'의 처지에 적절하다.

④ '각골통한(刻骨痛恨)'은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럽다는 뜻이다. 따라서 돈이 많음에도 괘시를 받으며 살았던 '부자'의 속마음을 나타내기엔 적절한 표현이다.

⑤ '속수무책(束手無策)'은 손을 묶은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 한다는 뜻으로, 방법을 찾지 않고 울기만 하는 '양반'의 모습에 어울리는 표현이다.

06 이 글의 '아내'는 잡혀갈 처지임에도 방법을 찾지 않고 울기만 하는 '양반'을 보고 양반은 한 푼어치도 안 된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양반에 대한 풍자적 표현이다.

07 ㉑은 경제적으로 무능한 '양반'을 비판하는 풍자적 표현이다. 풍자는 웃음을 통해 부정적인 대상을 거부감 없이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표현 방식이다. ④는 풍자가 아닌 역설의 효과에 해당한다.

08 (나)는 양반으로서 지켜야 하는 의무와 규범을, (라)는 양반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제시하고 있다. (라)에서 '글꺼나 읽고 나면 잘되면 과거 시험을 보아 문과에 오르고, 못되어도 진사는 할 수 있다.'라고 했으므로, ④의 해시태그는 (라)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09 <보기>의 사설시조에서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있는 모습은 양반이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모습을 풍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의 ㉑ 또한 권력을 남용해서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양반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10 준서는 지유가 제시한 탄소 중립 관련 영상을 만들면, 매체 자료를 본 학생들이 탄소 중립을 직접 실천할 수도 있어서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이는 결과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11 민재네 모듬은 탄소 중립 실천 방법을 알려 주는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하여, 학생들이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평가 기준	확인
교내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input type="checkbox"/>
한 문장으로 썼다.	<input type="checkbox"/>

12 바닥에 엎드린 채 '군수'를 맞으며 굽신거리는 '양반'의 모습은 '로 앵글'로 우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왜소함, 무기력, 소외 등을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대상을 눈높이보다 위에서 촬영하는 '하이 앵글' 각도로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롱 숏'으로 촬영하면 '군수'가 '양반'의 집으로 가는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다.

② '풀 숏'으로 촬영하면 달라진 '양반'의 모습에 주목할 수 있다.

④ '미디엄 숏'으로 촬영하면 인물의 표정을 화면에 담을 수 있으므로 '군수'가 놀라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다.

⑤ '양반'이 평민으로 전락한 모습은 풍자적인 상황이므로, 진지한 음악보다는 익살스러운 음악이 적절하다.

13 영상 매체 자료를 편집할 때는 촬영한 영상 중 주제와 제작 목적에 맞는 장면을 선택하여 계획한 분량에 맞게 조절해야 하고, 필요한 장면은 순서에 따라 재배치할 수 있다.



틀린 문제

나만의 정리

# 오답 노트

틀린 문제를 오려서 붙이거나 다시 적어 봐.  
그런 다음 틀린 이유나, 정답인 이유 등을 정리하면  
머릿속에 쑥쑥 저장될 거야.



틀린 문제

나만의 정리